

# 예술가의 초상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8 vol.321

## 09

유럽 박물관 기행

스페인 낭만주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가 있는 곳, 프라도 미술관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한국 오페라 최초의 새로운 시도  
홀로그래프 영상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공연예술 전위 '신의 아그네스'



신의 아그네스

2018  
**부산사랑 음악회**  
부산 유라시아 그리고 북극항로

2018. 9. 18. Tue.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O



예술감독  
오충근 Choong-Keun Oh



바이올린  
김재원 Jae-Won Kim



클라리넷  
백동훈 Dong-Hoon Baek

**PROGRAM**

**모차르트** | 교향곡 25번 작품183  
*W. A. Mozart* | Symphony No. 25 in g minor, K. 183

**모차르트** | 클라리넷 협주곡 작품622  
*W. A. Mozart* |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 622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35  
*P. I.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차이콥스키** | <백조의 호수> 작품20  
*P. I. Tchaikovsky* | <Swan Lake> Op. 20, Act. III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주최

# 제26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쿨

THE 26th GloVil National Music Competition

2018. 10. 3 / 10. 6 / 10. 9

대회일 2018. 10. 3 (수) 피아노/작곡  
2018. 10. 6 (토) 성악/중창/국악  
2018. 10. 9 (화) 현악/관악/실내악

대상 유·초·중·고·대·일반전공·일반비전공  
접수기간 2018. 9. 1~9. 28(금) (대회일정 : 9. 29 홈페이지 게재)  
접수처 글로벌아트홀 홈페이지 [www.glovil.org](http://www.glovil.org)  
첫 화면에서 접수신청 클릭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 제5회 신영음악콩쿨

2018년 9월 29일(토)

접수기간 8월 8일(수)~9월 22일(토)  
접수처 글로벌아트홀 홈페이지([www.glovil.org](http://www.glovil.org))  
첫 화면에서 접수신청 클릭

대회일 2018. 9. 29.(토)  
9시 국악·작곡 / 10시 관악 / 11시 현악 / 14시 성악 / 16시 피아노  
(학년별 상세 일정 및 공지사항은 2018년 9월 26일(수) 홈페이지에 탑재)

| 주최 |  GloVil Art Hall | 후원 |  부산광역시 |  동래구청 | 협찬 |  JOSEPH X STACEY |  seagullcorns  
CREATIVE GROUP

글로벌아트홀 T. 051-505-5995 / F. 051-505-5935 / E-Mail, [glovil@hanmail.net](mailto:glovil@hanmail.net)  
47849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온천3동)

TALK 글로벌아트홀

09. 14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09. 16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10. 02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10. 04 부산 문화회관 중강당  
10. 06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 10 대전 예술의전당 앙상블홀

JULIUS\_JEONGWON KIM PIANO RECITAL

# SCHUBERT'S COMPLETE 21 PIANO SONATAS

GRAND FINALE TOUR  
김정원 전국 투어

2018.10.4(목)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주최 WCN WMN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www.interpark.com) 문의 051.744.4780 (010.9274.4780)

티켓 R석 6만원 / S석 4만원 | 학생-초·중·고·대학생 30% (공연당일 학생증 지참)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예술인패스 20% 할인

# Contents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가의 초대

2018년 9월호 통권 321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8년 8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 08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공연예술 전위 '신의 아그네스'

## 10 SCHEDULE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9월 공연캘린더

## 14 BACKSTAGE OPERA

한국 오페라 최초의 새로운 시도  
홀로그램 영상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 16 MUSEUM OF EUROPE

스페인 낭만주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가 있는 곳  
프라도 미술관(Museo Nacional del Prado)

## 20 TRAVEL WITH YOU

풀내음 가득한 선비고을  
영주 야간여행

## 27 PREVIEW



## 34 ISSUE

2018 부산비엔날레  
비록 떨어져있어도

## 36 REVIEW

## 38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 52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 54 NEW BOOK

새로 나온 책

## 59 INTERVIEW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만나다

## 이달의 PICK

올해 여름은 그 어느때 보다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될 예정이다.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서울은 39.6°C(8월 1일)를 기록,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다. 그러나 9월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를 맞을 것이다. 9월, 부산에서는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 의 클래식 음악축제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해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사)아지무스오페라단의 Opera in concert에서는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토스카'를 만날 수 있으며, '잊혀진 계절'의 주인공 가수 이용과 앙상블포유가 마련하는 감성무대, 즐거운 콘서트 '만남'에서는 초가을의 서정을 느껴볼 수 있다.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유시인(音遊詩人)의 숨결'  
8월 29일(수)-10월 16일(화)  
부산문화회관, 區 문화회관, 국립부산국악원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 축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수준높은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즐겨보자.



(사)아지무스오페라단 제37회 정기공연  
Opera in concert '토스카(Tosca)'  
9월 4일-5일 화-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그린 오페라 '토스카'의 주옥같은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는 (사)아지무스오페라단 Opera in concert.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즐거운 콘서트 '만남'  
9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깊어진 감성을 선사할 가수 이용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는 앙상블포유가 선사하는 추억과 감동이 있는 무대.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공연예술 전위 '신의 아그네스'

파격적 소재와 더불어 인간과 신의 관계, 종교와 믿음에 대한 질문으로 초연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연극 '신의 아그네스'가 9월 13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 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가족극장으로 새롭게 단장된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의 재개관을 기념하는 무대로,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새롭게 문을 연 사랑채극장은 기존 212석이었던 객석 수가 300여석으로 늘어났으며, 가족극장에 어울리는 컬러풀한 벤치형 객석을 설치, 어린이는 물론 체형이 큰 어른들도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다. 지난해 9월,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위해 기존 소극장을 어린이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 사랑채극장은 개관 후 지난 한 해 동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 개관기념작인 에듀테인먼트 '로보카폴리-세가지 안전약속'에 이어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을 장기간 상연하면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나들이 장소로 각광받아 왔다.

◇ 9월 13일-14일 목-금요일 오후 7:30,  
 ◇ 15일 토요일 오후 3:00, 6: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개관 기념작인 연극 '신의 아그네스'는 뉴욕의 한 수녀원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희곡작가 존 필마이어가 쓴 희곡 작품이다. 오늘날 성인은 존재하는가? 오늘날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이런 현상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그 자신이 천주교도였으나 종교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었던 존 필마이어의 이러한 변민은 그가 '신의 아그네스'를 집필하는데 중심적인 모티브가 되었다. 당시 신예작가였던 존 필마이어의 '신의 아그네스'는 1979년 미국 최고 희곡상(The Great American Play Contest)을 수상한데 이어 1982년 브로드웨이로 진출해 롱런을 기록했으며, 1985년에는 그가 직접 각색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호평을 받으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3년 실험극장 초연 당시 최장기 공연, 최대 관객을 동원하며 당시 아그네스 역의 배우 윤석화를 스타로 만들었으며 이후 신애라, 김혜수, 차유경 등 쟁쟁한 여배우들이 아그네스 역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의 아그네스'는 '갓 낳은 아기를 목 졸라 죽인 수녀'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신과 인간, 믿음을 둘러싼 진지한 질문과 섬세한 심리묘사로 인해 '현대인의 성서', '여자들의 에쿠우스'라고도 불린다. 작품 속에서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알코올중독자인 방탕한 어머니 밑에서 기형적인 과잉보호로 살아온 아그네스 수녀와 여동생이 수녀원에서 죽은 이후 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닥터 리빙스턴, 그리고 신의 기적을 그리워하는 원장수녀 미리암이 그들이다. 수녀 아그네스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죽여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아그네스의 법정 정신과 의사인 닥터 리빙스턴은 사건 발생 당시 아그네스의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아그네스와 미리암 원장수녀를 만난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그네스는 성모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한 방식처럼 자신도 그렇게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순수한 아그네스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원장수녀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에 동의한다. 실제로 일어난 과학적 사실에만 관심을 갖는 닥터 리빙스턴과 신앙에 관련된 믿음과 기적을 주장하는 미리암 원장수녀의 대립은 점점 깊어가고, 당사자인 아그네스의 결벽에 가까운 순수함은 사건에 대한 의문을 더욱 더 가중시킨다. 결국, 닥터 리빙스턴은 최면요법까지 동원해 진실을 밝히려 하고 마침내 쏟아져 나온 아그네스의 고백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실제 아기를 누가 죽였냐에 관심을 기울였던 모

두에게 경악과 충격, 그리고 믿음과 기적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공연예술 전위 대표인 전승환이 연출하고 송순임 전 부산시의회 의원, 김지현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 안필자 배리어프리영상포럼 회장 등 독특한 이력을 지닌 세명의 배우가 호흡을 맞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극단 전위무대 제108회 정기공연에서도 같은 작품으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극단 전위무대는 지난 1963년 창단된 후 부산연극 지킴이로 매년 정기공연과 소극장 69운동, 여름연극학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가져왔으며, 지난 2010년 '공연예술 전위'로 명칭을 바꾼 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한국연극협회가 연극계에 기여한 원로연극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제3회 늘푸른 연극제' 주인공으로 선정되기도 한 연출가 전승환은 200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공로상, 2005 부산 문화예술 대상(공연부문, MBC), 2010 올해의 자랑스런 연극인상(한국연극협회), 2012 부산광역시 문화상(공연부문), 2017 한국예총 예술문화 대상(연극부문)을 수상했으며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장, 전국 연극인 협의회 회장, 부산 연극 연출가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 09

2018 SEPTEMBER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첼**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전시실

**부산조각가협회전**  
**‘지역을 넘어 세계로 V’**  
9월 7일(금) ~ 9월 16일(일)  
부산조각가협회 김성민 총무  
010-5594-0342

**동의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커뮤니케이션전공 졸업전시회**  
9월 20일(목) ~ 9월 22일(토)  
정경호 010-4425-8426

**2018년도 부경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9월 28일(금) ~ 9월 30일(일)  
이진욱 010-4324-2620

2

3

4

해금 아쟁 그리고... 17:00  
**중** 초대/해아연(010-8991-4148)

(사)아지무스오페라단 제37회 정기공연  
**Opera in concert ‘토스카’** 19:30  
**대** 7만원·5만원·3만원·2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010-8520-4649)

제15회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프랑스의 향기’  
19:30  
**첼** 전석 1만원/최낙주(010-4536-2351)

9

10

11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드림프로젝트’** 11:00, 14:00, 17:00  
**대** 초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516-8293~4)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8회 정기연주회  
**‘Symphony NO.5-IV’** 19:30  
**대** 전석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0)

미루샘합창단 제22회 정기공연 19:30  
**중** 무료/부산시여성문화회관(320-8331-3)

16

17

18

제5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19:30  
**중**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2018 부산사랑음악회 ‘부산 유라시아 그리고 북극항로’ 19:30  
**대** 5만원·3만원/부산MBC(760-1094)

박시하 바이올린 리사이틀 18:00  
**첼** 전석 3만원/박시하(010-9650-0720)

소프라노 강소영 독창회 19:30  
**첼** 전석 1만원/강소영(010-3645-7953)

23

24

25

어린이뮤지컬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갓-세기의 대결’ 11:00, 14:00  
**대** 6만5천원·5만5천원  
락엔터테인먼트(1566-9151)

30

뮤지컬 ‘공룡메카드 어드벤처월드’ 11:00, 14:00  
**대** 5만5천원·4만5천원  
(주)하늘이엔티(070-4282-2974)

WED

THU

FRI

SAT

1

영화 속 클래식 시리즈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 13:00, 15:30

중 3만원·2만5천원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02-766-7623)

제 1회 부산의치대 OB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9:30

참 무료  
부산의치대 OB 관현악단(010-9232-0906)

5

(사)아지무스오페라단 제37회 정기공연  
Opera in concert '토스카' 19:30  
대 7만원·5만원·3만원·2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010-8520-4649)

6

KT Chamber orchestra 부산 특별연주회 19:30

대 (주)컬쳐비즈글로벌(1522-0178)

7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3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국

사이클 VI '마지막 순간'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8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V 17:00

대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516-8293~4)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17:00

중 초대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010-2547-6971)

박순기, 김리라 듀엣 콘서트 19:30

참 아트네상스(010-9204-5854)

12

13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VI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19:30

대 초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516-8293~4)

2018 현대무용단 자유 정기공연 20:00  
중 전석 1만원/현대무용단 자유(010-8541-3428)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19:00  
참 무료/(재)강림문화재단(637-5678)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신의 아그네스' 19:3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4

부산시립합창단 제172회 정기연주회  
'루마니아 거장 아드리안 슈타나케 초청연주회'

19:3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6)

제2회 뮤토플룻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참 뮤토플룻앙상블(010-4599-258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신의 아그네스' 19:3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즐거움 콘서트 '만남' 15:00

대 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장재혁 클라리넷 리사이틀 17:00

참 2만원·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신의 아그네스' 15:00, 18: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9

20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시민음악회 19:30

대 초대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02-360-4073)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74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중 전석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2회 SOLACIELO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19:30

참 2만원·1만원  
SOLACIELO 성악연구회(010-2330-0994)

21

22

어린이뮤지컬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갓-  
세기의 대결' 11:00, 14:00, 16:30

대 6만5천원·5만5천원  
락엔터테인먼트(1566-9151)

이소진, 표세구 피아노 듀오콘서트 17:00

중 초대/표세구(010-2789-3900)

26

27

28

29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4회 청소년 협연  
의 밤 '2018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19:30

중 전석 2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신정운 피아노 리사이틀 '프랑스 음악여행'  
19:30

참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뮤지컬 '공룡메카드 어드벤처월드'  
11:00, 14:00, 16:30

대 5만5천원·4만5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

BBS특집공개방송 '아름다운 오늘입니다'  
15:00

중 BBS부산불교방송(749-5131)

# 09

2018 SEPTEMBER

##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아** 야외광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 작가 퀴틴 블레이크展 in 부산  
7월 7일(토)-9월 30일(일)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8:00, 입장마감 오후 7:00)  
균일 8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천원, 단체 4천원,  
초중고생 3천원, 미취학아동 2천원, 유아·장애인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32, [www.bscc.or.kr](http://www.bscc.or.kr)

2

3

4

2018년 부산시 교육청 학원장 연수 10:00  
**대**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부산지회(802-7531)

9

10

11

2018년 부산시 교육청 학원장 연수 10:00  
**대**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부산지회(802-7531)

16

17

18

부산대·동아대·동의대 부산 3개 대학 합동  
관악대축제 19:00  
**대** 무료  
동아대학교 음악대학(010-7288-9435)

제17회 부산재가노인복지대회 15:00  
**대** 초대/부산광역시(508-7001)

23

24

25

30

제25회 부산국악대전 09:30  
**대** 부산국악협회(644-5211)

| WED   | THU  | FRI   | SAT   |
|---|--|---|---|
|   |  |   | <p align="center"><b>1</b></p> <p>부산-홍콩 교류음악회 20:00<br/> <b>대</b> 초대<br/>           인터내셔널 뮤직 소사이어티(010-7545-8176)</p> <p>제59회 중앙음악 전국콩쿠르 09:30<br/> <b>소</b> 중앙Art Management(208-5253)</p>   |
| <p align="center"><b>5</b></p>  | <p align="center"><b>6</b></p> <p><b>대</b>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br/>           ‘부산시립교향악단의 ORCHESTRA+ 이별의 순간’ 19:30<br/> <b>대</b> 전석 1만원<br/>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p>어린이뮤지컬 ‘어흥! 호랑이와 꽃감’<br/>           10:30, 11:20, 13:00<br/> <b>소</b>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 <p align="center"><b>7</b></p> <p>어린이뮤지컬 ‘어흥! 호랑이와 꽃감’<br/>           10:30, 11:20, 13:00<br/> <b>소</b>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기획공연<br/>           ‘2018 시민뜨락축제-민주신트리오, 정다혜 댄스컴퍼니’ 12:20<br/> <b>아</b> 무료<br/>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 <p align="center"><b>8</b></p>  |
| <p align="center"><b>12</b></p> <p>어린이뮤지컬 ‘어흥! 호랑이와 꽃감’<br/>           10:30, 11:20, 13:00<br/> <b>소</b>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 <p align="center"><b>13</b></p> <p>어린이뮤지컬 ‘어흥! 호랑이와 꽃감’<br/>           10:30, 11:20, 13:00<br/> <b>소</b>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 <p align="center"><b>14</b></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기획공연<br/>           ‘2018 시민뜨락축제-부산팝스앙상블’ 12:20<br/> <b>아</b> 무료<br/>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 <p align="center"><b>15</b></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2회 정기연주회<br/>           ‘친구들아 모여라’ 17:00<br/> <b>대</b> 전석 2천원<br/>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7)</p> <p>인제외대 클래식기타 동아리 ‘여섯 가락의 울림’<br/>           제 35회 정기연주회 19:00<br/> <b>소</b> 무료/여섯 가락의 울림(010-7679-2287)</p> |
| <p align="center"><b>19</b></p>   | <p align="center"><b>20</b></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기획공연<br/>           ‘오늘 같은 밤 콘서트’ 19:30<br/> <b>대</b> 전석 1만원/국제신문(500-5222)</p> <p>2018년 제19회 악물 오남용 예방 뮤지컬 19:00<br/> <b>소</b> 초대<br/>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br/>           (462-1022)</p>                                   | <p align="center"><b>21</b></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기획공연<br/>           ‘2018 시민뜨락축제-소리연구회 소리숲’ 12:20<br/> <b>아</b> 무료<br/>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 <p align="center"><b>22</b></p>   |
| <p align="center"><b>26</b></p>   | <p align="center"><b>27</b></p>  | <p align="center"><b>28</b></p> <p>(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기획공연<br/>           ‘2018 시민뜨락축제-이소정 경기민요, 그룹 네살차이’ 12:20<br/> <b>아</b> 무료<br/>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p>  | <p align="center"><b>29</b></p> <p>제25회 부산국악대전 09:30<br/> <b>대</b> 부산국악협회(644-5211)</p> <p>제25회 부산국악대전 09:30<br/> <b>소</b> 부산국악협회(644-5211)</p>   |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한국 오페라 최초의 새로운 시도

홀로그램 영상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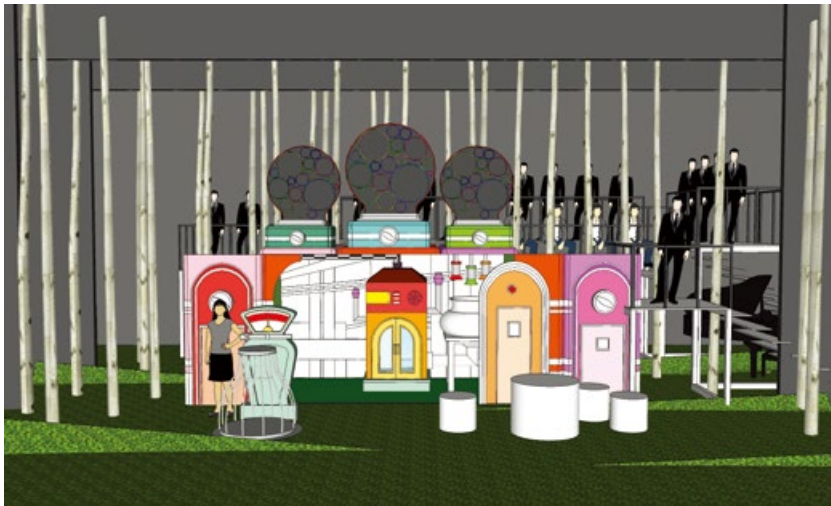
2016년 여름,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최종 리허설을 마치고, 새로운 프로젝트 스태프 미팅을 하고 있었던 저녁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의주 선생, 나 성남문화재단의 이상균 예술국장(현재는 축제추진단 단장)이요, 잘 지내시죠?” 이것이 몇 년만인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립오페라단에서 3년간 상근 연출로 재직할 때 사무국장으로 같이 일하던 그였다. “이 선생, 작년 12월말에 ‘헨젤과 그레텔’ 작품을 소극장에서 공연했는데, 사실 이 선생이 하기에 규모는 작지만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 성남문화재단의 겨울 작품으로 계속 공연을 할까 하는데 같이 참여 할래요?” 이 국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독문학을 전공하다가 연극에 빠져 무대 예술에 매력을 느껴 그 영향으로 독일에서 공부한 후 국립극장과 국립오페라단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며, 그가 원하는 연출가로서도 여러 작품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이후 오페라 제작과는 조금 거리가 먼 여러 다른 문화재단에서 일하다가 성남문화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국장님께서 국립오페라단 이후로 저를 처음 불러주신 것인데, 아무 조건도 묻지 않

고 멋지게 잘 하겠습니다!” 나의 시원한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곧바로 프로덕션 미팅을 하자고 해서, 이번주 공연 끝내고 다음주 월요일 곧바로 달려가겠다고 했다. 아! 얼마만에 다시 ‘헨젤과 그레텔’을 하게 되는건가…!

나는 사실 ‘헨젤과 그레텔’을 기억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영웅 ‘김연아’이다. 과자집을 스케이트장으로 만든 것도,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그녀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시즌에 나는 경기도 화성 유엔아이 아트홀에서 ‘헨젤과 그레텔’ 공연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인 최초로 피겨 종목에서 멋지게 우아하게 턴을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무대 리허설을 하다가 길게 브레이크를 하고 다 같이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의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후 6년만에 다시 이 작품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감개무량했다.

획기적인 공간활용과 홀로그램 영상 시도로 매진사례를 낳았던 성남문화재단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무대 디자인 <성남문화재단 사진제공>



간략한 내용은 이렇다. 어느 시골 한적한 마을에 가난한 부부인 엄마(게르투르트), 아빠(페터), 그리고 아들(헨젤), 딸(그레텔)이 살고 있었는데, 그레텔은 뜨개질로 털 양말을 짜고 헨젤은 아버지가 장에 내다 파는 빗자루를 만드는 일을 한다. 일하다 지치고 싫증난 아이들은 장난치고 노는데 엄마가 집에 돌아와 이 모습을 보고는 아이들을 아단친다. 이 와중에 저녁으로 먹을 우유가 든 단지를 깨트린 엄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저녁으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산딸기라도 따오라고 아이들을 숲으로 쫓아 보낸다. 아빠는 그날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기분 좋게 집에 돌아

온다. 아이들을 숲으로 보냈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아이들을 찾으러 뛰어 나가면서 2막으로 넘어간다. 헨젤은 딸기를 따고 그레텔은 꽃으로 예쁜 화관을 만드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다가 순식간에 날이 어두워져버리고, 숲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기 시작한다. 그때 잠의 요정과 이슬 요정, 그리고 열넷 천사의 보호 아래 밤이 지나 아침이 밝아온다. 3막에서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에게 천사가 나온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과자로 만든 집을 발견한다. 배가 고프고 낯선 남매는 밖에서 그 과자집을 뜯어먹기 시작하고 그 때 이 집 주인인 마녀 로지나가 나타나 들어오라며 유혹한다. 마녀는 남매를 마법으로 붙잡아 잡아먹으려 시도하는데, 그레텔의 지혜로 마녀를 화덕에 밀어 넣고는 헨젤을 구해주고, 이전에 마법에 걸렸던 아이들도 모두 구출한다. 두 남매를 찾으러 온 부모는 아이들을 만나고 하늘이 도와주심에 감사하며 해피엔딩으로 막이 내린다.

성공적으로 피가로를 결혼에 골인시키고 성남문화재단 사무실로 향하던 내 머리 속에는 벌써 여러 구상과 비전이 떠오르면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먼저 대표이사님께 인사를 드렸다. 그분은 바로 나를 국립오페라단 상근 연출로 캐스팅 픽업하신 정은숙 대표님이셨다.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지만, 평소에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던 터라 좀 쑥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헨젤과 그레텔'은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소극장인데다가 오케스트라 피트가 없어서 공간 제약이 무척 많았다. 하지만 나와 디자

이너는 건축 공학적으로 잘 풀어내서 획기적인 공간활용 방법을 제시했고, 이를 마음에 들어했던 대표님과 국장님은 이 작품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약속해주셨다. 사실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공연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오페라 공연에서 한번도 시도해 본적이 없는 홀로그램 시스템을 공연에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제작비가 문제였다. 하지만 무대 디자이너의 인맥과 인프라를 총 동원해서 가성비 최고의 영상을 구현할 수 있었다. 특히 첫 공연 1막 헨젤과 그레텔의 집에서 2막 숲으로 넘어가는 홀로그램 영상 장면은 아마도 잊지 못할 오페라의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나는 이 홀로그램의 시도를 발판으로 그 다음해 '아이디' 전국 공연에서도 홀로그램을 시도했었다.(아쉽게도 사진으로 찍어도 그 효과를 볼 수 없어 사진 자료는 생략하기로 한다.) '헨젤과 그레텔'은 새로운 무대 뿐만 아니라 의상, 그리고 대소도구와 소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참신하고 유니크하게 만들어 결국 첫 해 10회 공연의 매진은 물론 그 다음해에도 크리스마스 시즌 공연으로 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의상 사진과 공연 장면  
<성남문화재단 사진제공>

황에 이르렀고, 올해 12월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3년째 공연을 이어가게 된다. 나의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이후 전국에서 '헨젤과 그레텔' 공연이 잇달아 상연되기 시작했고 다음달 10월에도 국립오페라단이 '헨젤과 그레텔'을 공연한다.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같은 큰 공연장이나 중극장, 소극장에서 제작하는 것은 어렵기는 매한가지이다. 특히 400석 가량의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의 경우 관객과 워낙 가깝고, 또한 요즘 관객들의 눈높이가 워낙 높기에 최상의 수준의 연출을 보이지 않으면 바로 퇴출되는 냉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 내 작품의 필모그래피를 남긴다면 분명 성남문화재단의 '헨젤과 그레텔'의 공간 구조학을 접목한 홀로그램의 공연은 꼭 남길 것이다. 그만큼 애착이 많이 갔고, 나를 도와준 스태프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작업에 참여해 주었다. 뜨거웠던 올해 여름이 지나게 되면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 만드는 작업을 서서히 시작하게 될 것 같다.

글·사진 김성민 (쥬류로자전기나라 교육팀장, 인문학 강사)

# Madrid





## 스페인 낭만주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가 있는 곳

### 프라도 미술관 (Museo Nacional del Prado)

- 1 알무데나 대성당(Catedral de la Almudena)
- 2 프라도 미술관 전경
- 3 프라도 미술관 정원



### 다양한 사람들의 공통점

유럽에서 10년간 여행자들을 돕는 삶을 살았다. 1년에 5천명 이상을 만났으니 적어도 10년간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숫자도 대단하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사실이 더 재밌는 부분이다.(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 5만 명이니 말이다.) 그리고 여행자들은 종종 처음 만난 나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속 이야기들을 많이 털어놓았다.(아마 여행이라는 것이 사람을 평소와 다르게 만드는 것 같다.) 10년 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건 누구를 만나도 대체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유럽 여행 나을 정도면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 못할 아픔이나 어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 19세기 낭만주의의 탄생과 화가 고야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탄생된 계층(영국 젠트리 프랑스 부르주아)들은 이성의 힘을 믿고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길 원했고 결국 이것은 시민의 힘으로 왕과 소수의 권력자들을 무너뜨린 프랑스 시민혁명(1789년)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왕과 귀족이 사라지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리라 믿었지만 사회는 다시 혼란에 빠졌고 이후 시민들의 기대 속에 등장한 나폴레옹도 온 유럽을 전쟁터로 바꿔버렸다. 나폴레옹 몰락 이후 사람들은 집단 이성의 힘보다 개인의 감성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낭만주의 시대'라고 한다. 오늘 소개할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 1746~1828)는 바로 이 변화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었다. 가난한 도금 기술자 아버지와 몰락한 귀족 계급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고야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14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당시 최고의 마드리드 미술학교에 도전했으나 두 번(17세, 20세)이나 낙방한 다음 자비로 투우단을 도우며 이탈리아까지 가게 된다. 고향으로 돌아온 고야는 27세 때 오랜 친구이자 궁정 예술가로 활동 중이던 프란시스코 바예유의 누이와 결혼하는데 이 결혼은 아마도 당시 화가로써 성공적으로 궁정에서 일했던 처남의 도움을 받기 위한 전략적인 결혼일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고야는 이후 처남의 도움으로 궁정으로 들어가고 40세가 되었을 때 궁정 화가가 된다.



4

### 궁정 스캔들을 기록한 카를로스 4세 가족의 초상화

비교적 통치를 잘했던 아버지에 비해 새로운 왕 카를로스 4세 (Carlos IV, 1748~1819)는 무능하고 게으른 왕이었다. 결국 남편을 대신해 왕비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문제는 왕비가 20대의 어린 자신의 내연남을 스페인 총리로 발탁한 것이다. 이런 무능한 왕과 악한 왕비로 인해 스페인은 혼란에 빠졌고 나폴레옹의 소식이 스페인으로 전해지던 1801년에 고야는 왕의 명령으로 왕의 가족을 그리게 된다. 고야는 그림 속에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림의 중심에 왕이 아닌 왕비를 배치했고 개인적으로 왕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왕의 첫째 아들 페르난도 7세를(왼쪽에서 두 번째) 오히려 그림의 가장 앞쪽에 배치하고 있다. 왕자의 왼편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의문의 여인이 있는데 아직 미혼이었던 왕자의 미래의 아내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왕과 왕비의 손을 잡고 있는 붉은 옷의 어린 왕자는 당시 왕비와 총리의 자녀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런 소문을 잠재우고자 가운데 배치했다고 한다. 한편 고야는 가장 왼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궁정 화가라는 직책이 부끄러웠는지 어둠속에 숨어있는 모습이다.

### 낭만주의 그림의 대표작 검은 그림들

이후 스페인은 나폴레옹의 공격과 내전으로 최악의 상황이 된다. 고야 역시 갑자기 찾아온 청력 상실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40년간 함께했던 아내의 죽음 그리고 개인적인 중병이 연속해서 찾아오면서 70대 초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게 된다. 그 어려운 순간 고야는 조용히 마드리드 근교에 집을 구입하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고야는 이곳에서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14점의 작품 대부분이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담고있는데 그래서 이 그림들은 현재 '검은 그림들(Black paintings)'이라고 부른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이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이다. 사투르누스는 원래 신들의 왕인 크로노스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자식에게 권력을 빼앗긴다는 신화를 받고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잡아먹었다고 한다. 원래 이 작품은 이전에도 화가들이 즐겨 그렸는데 신화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름과 별을 그려서 현실 세계가 아닌 것을 나타냈다. 하지만 고야는 작품 속에서 신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5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채 눈을 부릅뜬 살인마가 어둠 속에서 인육을 먹고 있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표현했다. 다수가 동의하는 이성적인 그림이 아닌 개인의 우울한 감성을 표현하는 낭만주의 회화의 절정인 것이다. 고야는 말년에 “그림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에 대한 개인적 시각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1828년 고야가 죽은 이후 1830년대 사진술이 유행하며 미술은 단순한 시각 예술에서 화가 정신의 세계로 확장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고야는 상당히 근대적인 생각을 가졌던 화가로 평가된다.



6

### 나쁜 사람은 없고 나쁜 상황이 있다.

얼마 전 보았던 유명한 영화의 대사이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 결국 나약한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겠다. 이 대사는 어쩌면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계몽주의자들이 인간 이성의 한계를 느끼며 낭만주의로 넘어갔던 고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대사로 생각된다. 2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 결국 한 인간에게 완벽한 상황과 환경은 없다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화가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40년간 함께 했던 아내를 잃고 이후 중병에 걸렸던 70대 초반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고야는 그 때 자신의 아픔을 감추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그림으로 표출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 더 중요한건 14점의 그림들을 완성한 다음 더 이상 그 그림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아픔을 정직하게 표현한 다음 다시 과거의 아픔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감추고 표현하지 못한 채 계속 과거로의 아픈 여행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애석하게도 역사를 보면 세상은 공평하기보다는 불공평한 적이 더 많았고 좋은 상황보다는 나쁜 상황이 더 많았다. 나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고 인정해버리고 혹 나쁜 상황으로 인해 원치 않는 아픔을 받는다면 그때그때 감추지 말고 고야처럼 좋은 방법으로 표출한다면 어떨까? 혹 자신의 나쁜 환경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완벽한 세상이었던 에텐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으니 말이다.

4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1819~1823)

5 카를로스 4세의 가족 초상화(1801)

6 화가 고야의 동상



## 풀내음 가득한 선비고을 영주 야간여행

연일 계속되던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지난 8월 10일,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8월의 테마여행지는 풀내음 가득한 선비고을 영주. 특히 이번 영주 테마여행은 영주 소백산예술촌이 주관하는 '선비고을 영주 야간여행'으로, 역사와 문화예술, 자연이 어우러지는 알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게다가 영주는 지난 2013년 이후 오랜 만에 가는 여행지라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회원들의 기대가 컸다.

테마여행을 떠나는 8월 10일 아침, 높은 경쟁률을 뚫고 테마여행 당점의 행운을 안은 43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무더위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떠나는 여름여행에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부산을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영주 무섬마을에 도착했다. 오후부터 시작되는 선비고을 영주 야간여행에 앞서 최근 '와나무다리'로 영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무섬마을에서 테마여행 일정을 시작했다.

안동 하회마을, 예천 회룡포, 영월 청령포와 같이 마을의 3면이 물로 둘러 쌓여 있는 대표적인 물둘이 마을인 무섬마을은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과 영주천이 합수되어 태백산과 소백산 줄기를 끼고 마을의 3면을 감싸듯 휘감아 돌면서 마치 섬처럼 육지



- 1 소망을 담아 날리는 풍등 체험(영주소백산예술촌)
- 2 소수서원 일신재
- 3 무섬마을의 명물 '외나무 다리'

속의 섬마을로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채 살아가고 있다. 무섬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만죽재(1666년)를 비롯해 해우당, 만운고택 등 마을 가옥 중 38동이 전통가옥이고, 그중 16동은 조선시대 후기의 전형적인 사대부 가옥이다. 만운고택은 시인 조지훈의 처갓집으로, 조지훈 시인은 그의 시 '별리'를 통해 이 곳 무섬마을의 아름다움을 노래 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가 바로 350여년간 무섬마을과 강건너를 연결시켜준 외나무다리이다. 1979년 수도교가 놓이기 전까지 마을의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한 이 외나무다리는 길이가 무려 150m에 이르지만 폭은 30cm에 불과해 긴 장대에 의지한채 건너야 한다. 수도교의 건설로 사라졌던 외다리는 최근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매년 10월에 '외나무다리 축제'가 열리고 있다. 때맞춰 전날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인 무섬마을을 돌아본 후 본격적인 영주여행을 위해 소수서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선 오후 일정에 앞서 삼계탕으로 든든히 속을 채운 회원가족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에서 '전비고을 영주 야간여행'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소수서원에 도착하자 이번 야간여행을 이끌어줄 영주소백산예술촌 조재현 촌장이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소수서원은 당시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고려말의 유학자이자 최초의 성리학자였던 회현 안향 선생을 기리고자 세운 백운동서원이 그 전신으로, 이후 퇴계 이황 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조정에 건의,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으면서 소수서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소수서원은 1868년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할 때에도 존속했으며, 현재 사적 제55호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서원을 둘러본 회원들은 바로 인근에 자리한 선비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회현 안향 선생의 고향인 순흥에 조성된 선비촌은 예로부터 학문과 예(禮)를 숭상했던 선비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비들이 실제로 살았던 생활공간을 복원시켜 선비의 일생과 정신을 엿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테마가 있는 여행



- 4 부석사에서 바라다보이는 산 능선들
- 5 안데스 민속 음악 전문 공연단 '가우사이'의 무대
- 6 한량무를 추는 영주소백산예술촌 조재현 촌장



소수서원과 선비촌 탐방을 마친 회원들은 영주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과일, 사과따기 체험을 위해 인근 과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계속되는 폭염에 직황이 좋지 않아 걱정이라는 조재현 촌장의 이야기에 회원들은 하루빨리 이 더위가 물러가길 기원하며 곳곳한 여름사과를 한입 베어물며 잠시 더위를 식혔다. 이후 일정을 위해 부석사로 이동한 회원들은 부석사 탐방에 앞서 산채정식으로 이른 저녁식사를 마쳤다.

신라 문무왕 16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무량수전을 비롯해 국보 5점, 보물 6점 등 많은 문화재를 지닌 우리나라 10대 사찰 중 한 곳이다. 부석사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무량수전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아래의 바위와 서로 붙지 않고 떠 있어 '뜯돌'이라 부른데서 연유했다고 한다. 부석사로 올라가는 길, 마침 반가운 소낙비가 내린다.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목조 구조 기술의 정서라는 배흘림 기둥이 있어 건축미의 극치를 보여주며 우리나라 목조건물 중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힌다. 날씨가 흐려서 아쉽게도 그 장엄하다는 부석사의 저녁 석양을 볼 수는 없었지만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그림보다 더 곱게 곱쳐진 능선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부석사 일정까지 마친 회원들은 남아있는 일정을 위해 영주소백산예술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영주소백산예술촌은 지난 2011년 2월, 폐교인 부석북부초등학교에 설립된 지역 문화공간으로, 연극연출가인 조재현 촌장을 비롯해 문화예술인들이 운영위원으로 참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다. 영주소백산예술촌에 도착하자 예술촌이 준비한 야외콘서트의 주인공인 영주시청 공무원 통기타 동아리 '통사랑'과 남미·안데스민속음악 전문공연단 '가우사이(Kawsay)'가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술촌을 잠시 둘러본 후 곧바로 음악회가 펼쳐졌다. 통사랑의 흥겨운 7080 가요 메들리에 이어 가우사이의 신비로운 안데스음악이 예술촌을 가득 채운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곱디고운 한복으로 갈아입은 조재현 촌장이 회원들을 위해 예정에 없던 한량무를 추자 감탄과 박수가 터져나온다. 한전에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구워지는 삼겹살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칙칙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예술촌 운동장에는 캠프파이어 준비가 한창이다. 색색깔 고운 한지로 만들어진 종이등에 더운 공기를 불어 넣어 하늘로 올려보내는 풍등 띄우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캠프파이어가 시작됐다. 색색깔 고운 자태를 빛내며 올라가는 풍등에 시선을 떼지 못하던 회원들은 곧바로 이어진 캠프파이어 점화에 환호성이 터져나온다. 캠프파이어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부산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촌장님과 예술촌 사람들의 따뜻한 배움을 뒤로 하고 밤 10시, 부산으로 출발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영주 테마여행. 자연과 역사, 예술, 여기에 사람의 따뜻한 정이 있어 더 특별했던 영주 여행은 정기회원 가족들에게 '힐링여행'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10.12 ㉓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호국과 의병의 고장, 의령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망우당 곽재우 홍의장군과 17장령의 위패를 모신 충익사를 시작으로 의병박물관에서 의병 정신을 배운다.

일정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의령도착, 충익사, 의병박물관, 구름다리 탐방
- 12:00 의령조청한과 도착, 점심식사
- 13:00 한과만들기체험
- 14: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5:30 부산으로 출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양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 팀으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09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 |               |               |               |
|---------------|---------------|---------------|
| 고혜은(영도구 청학남로) | 박정식(남구 황령대로)  | 오정주(부산진구 초연로) |
| 김은경(남구 유엔로)   | 박주용(남구 분포로)   | 이해인(해운대구 양운로) |
| 김진숙(남구 석포로)   | 박호정(영도구 절영로)  |               |
| 김희숙(서구 흑교로)   | 신명희(남구 유엔평화로) |               |

기존 회원

- |                |                  |               |
|----------------|------------------|---------------|
| 강정숙(남구 흥곡로)    | 문혜경(부산진구 시민공원로)  | 허삼순(연제구 중앙대로) |
| 구근학(남구 전포대로)   | 박경자(수영구 황령대로)    | 황광주(수영구 좌수영로) |
| 구학송(북구 화명신도시로) | 안영수(금정구 중앙대로)    |               |
| 김달미(해운대구 세실로)  | 정례수(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               |



아름다운 동요의 세계 두 번째 이야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2회 정기연주회

# 친구들이 모여라

소녀의 꿈/동요메들리/풍선날리기/버들피리/우리가족 행복 낚시  
년 할 수 있어/미운오리의 날개/우리교실은/친구들이 모여라/오륙도 ...

지휘 이건륜

반주자 이영옥 안무지도자 노금선 성악지도자 노민지

2018. 9. 15 (토)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 균일 2,000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 607-3117, 317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8회 정기연주회

# SYMPHONY NO.5-IV

글라주노프 교향곡 제5번



지휘 김봉미



피아니스트 최영민

## Program

- 베르디 | 오페라 "아이다" 中 '개선행진곡'  
G.Verdi | "Triumphal March" from Opera "Aida"
- 베르디 | 오페라 "아이다" 1막 中 '칭아한 아이다'  
G.Verdi | 'Celesta Aida' from Opera "Aida" Act.I
- 베르디 | 오페라 "아이다" 1막 中 '이기고 돌아오라'  
G.Verdi | 'Ritorna vincitor!' from Opera "Aida" Act.I
- 베르디 | 오페라 "아이다" 4막 中 '이 세상이어 안녕히'  
G.Verdi | 'O terra, Addio!' from Opera "Aida" Act.III
- 리스트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F.Liszt | Piano Concerto No.1 in E-Flat Major, S.124
- 글라주노프 | 교향곡 제5번 '영웅적'  
A.Glazunov | Symphony No.5 in B-flat Major, Op.55

테너 정태성



소프라노 조윤정

2018. 9.11 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Invitation

|                 |                    |
|-----------------|--------------------|
| 가온아트홀           | 1600-1602          |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
| 공간소극장           | 611-8518           |
|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
| 글로벌아트홀          | 505-5995           |
| 금정문화회관          | 519-5651           |
| 더 무지카 아트홀       | 010-7191-2878      |
| 동래문화회관          | 550-6611           |
| 디코소극장           | 464-1996           |
|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
| 무대공감            | 623-0678           |
|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
| 미리내소극장          | 504-2544           |
|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
| 부산문화회관          | 607-6000           |
|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
| 부산시민회관          | 630-5200           |
| 부산예술회관          | 612-1372           |
|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
|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
|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
| 소민아트센터          | 991-1100           |
| 숨사탕아트홀          | 922-4545           |
| 수아트홀            | 744-1415           |
|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
| 아트카페 움          | 557-3369           |
| 액터스소극장          | 611-6616           |
| 에저또소극장          | 852-9161           |
| 열린아트홀           | 527-0123           |
|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
| 영화의전당           | 780-6000           |
|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
| 울속도문화회관         | 220-5812~3         |
| 일터소극장           | 635-5370           |
|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
| 차성아트홀           | 723-7203           |
|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
| 초콜릿팩토리          | 621-4005           |
| 축제 소극장          | 661-6981           |
|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
|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
| 효로민락소극장         | 623-6232, 245-5919 |
|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
|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
|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
| KBS부산홀          | 620-7181           |
|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
| SM아트홀           | 1600-1602          |

to the Arts

## 마지막 순간



최수열  
지휘자



이명주  
소프라노

‘관현악법의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해오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여섯 번째 무대인 이번 무대에서는 최수열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죽음이라는 관념을 소재로 작곡한 그의 두 번째 교향시 ‘죽음과 정확화 슈트라우스가 완성한 마지막 작품인 ‘네 개의 마지막 노래’, 그리고 슈베르트의 낭만 가곡 ‘밤과 꿈’을 들려준다. 첫 무대인 슈베르트 ‘밤과 꿈’은 밤과 꿈에 대한 명상을 담은 아주 낭만적인 작품으로, 몽환적이면서도 풍부한 슈베르트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이번 무대의 협연자인 소프라노 이명주는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특별연주회에서 지휘자 정명훈의 지휘로 오페라 ‘라보엠’의 미미 역으로 출연한 후 당시 정명훈이 지휘하던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다양한 무대에 서면서 ‘정명훈이 선택한 소프라노’로 국내에 알려졌다. 서울대학교와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예술분야 장학생으로 독일 뮌헨음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린츠 극장의 주역가수로 활동하기도 한 이명주는 뮌헨 프린츠레겐텐 극장에서 크리스토프 함머가 지휘한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3회 정기연주회

##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VI ‘마지막 순간’

자신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리릭 소프라노 이명주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3회 정기연주회 ‘마지막 순간’이 9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오페라 ‘요정의 여왕’, 울프 쉬르머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오케스트라의 오페라 ‘라보엠’에 출연하면서 독일 주요 언론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바 있다. 이명주가 들려주는 두 번째 곡인 ‘네 개의 마지막 노래’는 슈트라우스가 독일 시인 아이헨도르프의 시 ‘해질녘’과 헤르만 헤세의 시 ‘봄’, ‘9월’, ‘잠들며’에 곡을 붙여 완성한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으로, 네 곡 가사 모두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곡인 ‘해질녘’은 슈트라우스가 이미 60년전에 작곡한 ‘죽음과 정확화’의 선율을 사용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작곡가의

말년의 고독한 심경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번 무대의 대미를 장식하는 슈트라우스 교향시 ‘죽음과 정확화’는 시인 알렉산더 리터의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죽음이라는 관념을 소재로 한 곡으로, 첫 악장에서는 죽음에 직면한 병자의 두려움을, 두 번째 악장에서는 삶과 죽음사이의 사투를, 세 번째 악장에서는 활기 넘쳤던 지난 과거에 대한 회상을, 마지막 악장에서는 정확화의 모티브가 등장, 현실의 삶 너머의 세계를 차례로 다루고 있다.

**일시** 9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프리뷰

# Symphony No. 5-IV



제5번 교향곡을 통해 바로크에서부터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선사하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수석지휘자 김봉미의 지휘로 리하르트 글라주노프의 교향곡 제5번 '영웅적'을 부산 초연무대로 선보인다. 정기연주회의 또 다른 레퍼토리인 '오페라에서는 소프라노 조윤정, 테너 정태성의 협연으로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아이다' 중 주요 아리아를 들려주며, 피아니스트 최영민이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첫 무대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이집트의 무장 라다메스 장군과 포로로 잡혀온 에디오피아 공주 아이다와의 슬픈 사랑을 그린, 오페라 중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로, 2막 2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개선행진곡'을 시작으로 테너 정태성과 소프라노 조윤정이 라다메스와 아이다의 주요 아리아인 '청아한 아이다', '이기고 돌아오라에 이어 감옥에 갇힌 아이다와 라다메스가 부르는 이중창 '이 세상이여 안녕히'를 들려준다.

연세대학교 음악대학과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국립창원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조윤정은 그동안 오페라 '마술피리' '몽유병여인' '라보엠' '카발레리아 루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8회 정기연주회

### Symphony No. 5-IV

—  
 지난해부터 정기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작곡가들의 5번 교향곡을 연주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9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Symphony No. 5' 네 번째 무대를 마련한다.

스티카나' 등 오페라 주역을 비롯해 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경남 팝스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한신대학교 신학과, 이태리 G. Niccolini 국립음악원, A.Peri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테너 정태성은 이탈리아 베르가모 도니제티 극장에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로 데뷔한 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주요 극장에서 130여회 이상 오페라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민이 리스트의 '피아노협주곡 제1번'을 들려준다. 부산대학교 음악과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200여회가 넘는 무대에 출연해온 최영민은 2016 궁중문화축전 석조전음악회 음악감독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작품은 후기 러시아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글라주노프의 교향곡 제5번.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구축한 글라주노프의 강한 자신감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동료 작곡가인 세르게이 타네예프에게 헌정되어 1859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신 러시아 악파 연주회에서 초연되었다.

**일시** 9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어린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꾸준히 창작곡을 발표해온 동요사랑회 회원들의 2018년 신작 창작곡과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창작동요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 창신초등학교 어린이합창단, 러브 엔젤스 중창단이 출연, 어린이들의 동심을 담은 다양한 곡들을 합창곡과 중창곡으로 들려준다.

지난 1994년 창립된 동요사랑회는 아름다운 동심을 노래하는 순수 창작 동요를 작곡하고 보급하는 단체

로, 부산은 물론 울산, 경남, 제주, 충북, 강원, 서울 등 전국의 동요 창작자들이 매년 창작동요를 발표해오고 있다.

첫 무대를 여는 러브 엔젤스 중창단은 양산을 중심을 활동하는 실력과 중창단으로, 국립해양박물관 바다사랑동요제 대상, KNN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하는 창작동요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요메들리(박수연 편곡)를 시작으로 작곡가 윤학준의 창작곡 '소녀의 꿈'을 들려준다. 수석지휘자 이진륜이 지휘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장윤석 곡 '똥선날리기', 류지원 곡 '버들피리', 서필상 곡 '우리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2회 정기연주회

### 아름다운 동요의 세계 두 번째 이야기 '친구들이 모여라'

창작동요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창작곡을 발표해온 지역 동요작곡가들의 창작곡을 엄선하여 들려주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2회 정기연주회 '친구들이 모여라'가 9월 15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신진수 곡 '친구들이 모여라', 조오령 곡 '재미있는 실뜨기 놀이', 오희섭 곡 '자전거를 타고' 등을 들려준다.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 엄현섭)은 제2회 동아시아 청소년 국제콩쿠르 금상, 제12회 부산국제합창제 장려상을 수상하고 제9회 부산국제음악제 본선에 진출한 바 있다.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로, 우리 귀에 친숙한 창작 동요인 박봉렬 곡 '오륙도와 김정란' 곡 '정말 정말 미안해', 오희섭 곡 '서로의 별이 되어'로 두 번째 동요여행을 마무리한다.

## 친구들이 모여라

**일시** 9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7

프리뷰

# Adrian Stanache



지휘자 아드리안 슈타나케

부산시립합창단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시립합창단과 호흡을 맞추는 지휘자 아드리안 슈타나케(Adrian Stanache)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국립음악대학교와 부카레스트 음악원에서 기악과 작곡, 음악학을 전공했으며, 헝가리 리스트 국립음악원에서 마스터 클래스 디플롬을 취득하고 부카레스트 국립음악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 카르멘 블라데스쿠-아라드 오페라, 국립 엘레나 테오 도리니-크라이오바 오페라, 국립 에네스쿠-야쉬 오페라, 국립 다니엘라 브롬버스

쿠-부카레스트 오페라에서 합창지휘자와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한 아드리안 슈타나케는 2010년부터 국립 올레그 다노브스키 콘스탄짜 오페라합창단을 이끌고 있다. 슈타나케는 그동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20여개 국에 초청받아 명성을 쌓아왔으며, 지난 1993년 루마니아 국립 크라이오바 오페라 젊은 지휘자상을 비롯해 헝가리, 우크라이나, 폴란드, 불가리아 등에서 오페라 문화상과 오페라 예술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제이자 음악가였던 비발디가 남긴 대표적인 종교 성악곡인 비발디의 '글로리아 라장조 RV589'로 꾸며지는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가곡에서부

## 부산시립합창단 제172회 정기연주회

### 아드리안 슈타나케 초청 연주회

루마니아 국립 올레그 다노브스키 콘스탄짜 오페라합창단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아드리안 슈타나케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72회 정기연주회가 9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터 오페라 아리아, 성가곡을 들려준다. 첫 무대를 여는 비발디의 '글로리아'는 '대영광송'이라고도 불리며, 비발디 사후로 잊혔으나 20세기 초에 재발견되면서 오늘날 널리 연주되는 작품이다. 극적인 합창과 서정적인 아리아, 호모포니와 폴리포니 등이 명확한 대비를 이루는 바로크 성악 음악의 수작으로, 특히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샤인'에 삽입되면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곡이다.

2부 첫 무대는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중 핀커티를 애타게 기다리는 나비부인의 애절한 마음을 담은 '허밍 코러스(Humming chorus)',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3막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기'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 대성당의 전례곡으로 작곡한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중 '주님을 찬미하라(Laudate Dominum)', 그리고 현대곡인 Guido popez Gavila의 'Mombo Que rico E', Jake runestad의 'Ner Ner'에 이어 마지막으로 흑인영가 '내가 세상에 말할 수 있어요(I can tell the world)', '나는 바꿀 수 있어요(I'll make a difference)'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일시** 9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가수 이용



주연극시예배



초가을의 길목에서 만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한층 더 깊어진 감성을 선사할 가수 이용과 열린음악회를 지향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고 있는 앙상블포유, 관객층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청중들에게 감동과 힐링을 주는 누벨앙상블이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추억과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음악감독 나윤규를 주축으로 결성된 앙상블포유는 클래식 음악을 어

렵게만 생각하는 관객들에게 먼저 다가갈 음악을 통한 희망과 기쁨을 전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앙상블포유 대표, 산울림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인 베이스 나윤규를 비롯해 성악앙상블 음악감독, (주)한샘사내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테너 강성구,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테너 조운환, 예인교수 앙상블 단원, 앙상블포유 연주 이사로 있는 소프라노 박문주, 성신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앙상블포유 수석단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이택인이 로시니 곡 '춤(La danza)', 체자레 앙드레아 빅시오 곡 '맘마(Mamma)', 라라 곡 '그라나다', 카르덜로 곡 '무정한 마음(Cor'ngrato)',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 카푸아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즐거운 콘서트 '만남'

가을이면 생각나는 '잊혀진 계절'의 주인공  
가수 이용과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온  
앙상블포유가 마련하는 감성무대,  
즐거운 콘서트 '만남'이 9월 1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오 솔레미오' 등 국내외 가곡과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가요 '그대 그리고 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투나잇'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이밖에 서울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산울림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박영주, 고려대학교 동문 합창단 KU86 Ensemble 반주자, 산울림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권예린, 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수경으로 결성된 누

벨앙상블이 몬티 곡 '차르다시'를 비롯해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로 관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가수 이용이 그의 대표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1981년 '국풍81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바람이려오'로 금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처음 알린 이용은 1집 수록곡인 '잊혀진 계절'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후 '서울',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 등을 히트시키며 당시 조용필에 버금갈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 즐거운 콘서트 '만남'

**일시** 9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학생 본인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프리뷰



지난해 (재)부산문화회관과의 통합 기념으로 처음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던 '시민뜨락축제'는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부산시민회관의 기획공연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무용,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6차례 펼쳐져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올해 하반기 축제에서는 민주신티리오(재즈)를 비롯해 정다혜댄스컴퍼니(라틴댄스), 부산팝스앙상블(팝), 소리연구회 소리숲(퓨전국악), 이소정 경기민요(경기민요), 그룹 네살차이(대중음악), 부산시립무용단(전통무용), 폴란드그룹 볼로시(재즈), 젊은풍류(퓨전국악) 등 9개팀이 출연해 퓨전국악, 재즈, 팝, 라틴댄스 등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축제의 첫 날인 9월 7일에는 민주신티리오와 정다혜댄스컴퍼니가 무대에 선다. 네덜란드 유학파 재즈 피아니스트인 민주신을 주축으로 드러머 박진성,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황대웅으로 구성된 민주신티리오는 정통 재즈를 기반한 아름답고 흥미로운 음악을 선사하며, 정다혜댄스컴퍼니는 차차차, 룸바, 파소도블레, 삼바, 자이브 등 몸으로 말하는 예술 댄스스포츠인 라틴댄스를 선보인다. 14일에는 팝, 재즈, 가요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 시민뜨락축제

매주 금요일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2018 시민뜨락축제'  
9월 7일부터 한달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부산팝스앙상블이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연주를 들려준다. 9월 21일에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여러 장르의 음악을 넘나들며 평론가들과 관객의 주목을 받고있는 소리연구회 소리숲의 무대가 마련된다. 28일에는 경기민요 제57호 이수자로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이소정 우리연구소 대표로 있는 이소정의 경기민요 무대와 싱어송

라이터인 강유와 함께 뮤지컬배우, 인디가수 등 다양한 보컬리스트와의 콜라보를 통해 색깔있는 무대를 선사하고 있는 그룹 네살차이의 무대가 펼쳐진다.

10월 5일에는 부산시립무용단이 우리의 전통춤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구성한 창작춤을 선보인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2일에는 폴란드 출신의 월드그룹 볼로시와 전통음악의 전승과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작업에 큰 가치를 두고 창작작업을 펼쳐온 창작국악단 젊은풍류의 무대가 펼쳐진다. 현재 유럽을 대표하는 월드뮤직 그룹 중 하나인 볼로시는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와 비올리스트, 그리고 첼리스트와 베이스리스트로 이루어진 현악 5중주로, 클래식은 물론이고 재즈, 록, 팝, 집시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아우르는 감성적인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시민뜨락축제

일시 9월 7일(금)-10월 12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장소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입장료 무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 우승자 초청 리사이틀 시리즈

이호정  
피아니스트



홍민수  
피아니스트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지역 출신으로 세계 무대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작 한국 무대에서는 자주 설 기회가 없었던 차세대 연주자들에게는 고향인 부산에서의 연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음악애호가들에게는 그들의 빼어난 연주실력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첫 날인 10월 4일에는 2017 베토벤 국제피아노콩쿠르 3위 입상자인 피아니스트 이호정의 무대로 마련된다. 만 16세의 나이로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최연소 입학, 교수들의 만장일치 만점으로 디플롬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후 드레스덴 국립음대 Zenziper 교수의 발탁으로 작센 주정부 장학금과 독일 슈파카쎄 은행의 장학금을 받으며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호정은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출연하는 프랑스 라 로크 당테롱(La Roque D'Antheron) 페스티벌과 릴(Lille) 페스티벌, 님(Niemes) 페스티벌, 독일의 카셀러 무직타게(Kasseler Musiktage) 등에 초대받아 유럽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귀국 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더 깊은 연구와 연주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이호정은 이번 무대에서 바흐의 '영국 모음곡 제3번'과 베토벤 '32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를 빛낸 부산출신 피아니스트 국제 콩쿠르 우승자 초청 리사이틀 시리즈

지난해 유수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세계를 빛낸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 이호정, 홍민수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국제 콩쿠르 우승자 초청 리사이틀 시리즈'가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개의 변주곡,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들려준다.

둘째날인 10월 5일에는 2017 리스트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2위 입상해 화제를 모은 피아니스트 홍민수가 무대에 오른다. 통찰력 있는 음악과 견고한 연주로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킴은 홍민수는 만 9세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데뷔무대를 가진 후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일찍이 음악적 두각을 나타냈다. 미국 쉰델 국제피아노콩쿠르 주니어 부문 1위, 2011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4위 및 리스트 협주곡 특별상, 2012 모로코 필

하모니 피아노콩쿠르 2위 및 청중상, 2015 하노버 쇼팽협회 피아노콩쿠르 2위 등 국제콩쿠르 입상에 이어 2017년 독일 로스톡에서 열린 야마하 장학금 오디션에서 우승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홍민수는 그동안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 도독, 데트몰트 국립음대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홍민수는 이번 무대에서 리스트의 '순례의 해' 중 '스위스와 리스트가 바그너와 구노, 벨리니의 오페라를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작품을 들려준다.

하모니 피아노콩쿠르 2위 및 청중상, 2015 하노버 쇼팽협회 피아노콩쿠르 2위 등 국제콩쿠르 입상에 이어 2017년 독일 로스톡에서 열린 야마하 장학금 오디션에서 우승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홍민수는 그동안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 도독, 데트몰트 국립음대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홍민수는 이번 무대에서 리스트의 '순례의 해' 중 '스위스와 리스트가 바그너와 구노, 벨리니의 오페라를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작품을 들려준다.

일시 10월 4일-5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2018 부산비엔날레 비록 떨어져있어도

세계적 규모의 격년제 통합미술제인  
2018 부산비엔날레가 9월 8일  
화려한 개막을 시작으로 세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부산비엔날레는 1981년 지역 작가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비엔날레인 부산청년비엔날레와 1987년 시작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자연환경미술제인 부산국제바다미술제, 그리고 1991년 첫 발을 내딛은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이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로 통합되어 1998년 출범한 이후, 격년제 국제현대미술제로 개최되어 오고 있다. 부산비엔날레는 부산 지역미술인들의 순수한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비엔날레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지역 미술인들이 보여 주었던 부산문화에 대한 지역적 고민과 실험성은 오늘날까지도 부산비엔날레의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올해 2018 부산비엔날레의 전시 주제는 ‘비록 떨어져있어도(Divided We Stand)’.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전시감독 크리스티나 리쿠페로(Cristina Ricupero), 외르크 하이저(Jörg Heiser)가 공모 당시 제시한 ‘비록 떨어져있어도’는 동시대 미술을 통해 현재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대립과 갈등의 기저에 자리한 심리적 분리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영토의 물리적인 분리가 어떤 심리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유발하는지, 역으로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물리적인 분리와 갈등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동시대 미술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제시한다. 전시는 전시 주제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컨템포러리 작품들 중 주로 최근 수년간의 작품과 선별된 역사적 작품 일부, 그리고 다수의 신작 프로젝트들로 구성된다. 현실에 대한 무조건적인 낙관론이나 낭만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과 아픔에 대해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부산비엔날레만의 차별성을 꾀하고, 출품작가와 작품수를 늘리는 규모의 외형적 확장보다는 전시 기획의 응집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런 기획의도에 따라 이번 2018 부산비엔날레는 총 34개국 65명(팀)의 작가들이 참여하면서 주제의 핵심어인 ‘분리’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독일 작가 헨리케 나우만(Henrike Naumann)은 1990년대 초반 베를린 장벽 붕괴와 통일 이후의 상황, 이와 함께 수반되어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에 대한 현상들을 거대한 설치작업을 통해 보여주며, 싱가포르 작가 밉 윈(Ming Wong)은 중국과 홍콩의 경계에서 날카롭게 나타나는 분리를 다룬 작품을 선보인다. 앙골라 출신의 킬루안지 키아 헨다(Kiluanji Kia Henda)는 도려내고 싶은 과거 식민지 시대의 기억을 반추하는 모뉴먼트 작업을 펼침으로써, 기념비로서의 식민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제하고 있는 심리적인 기억을 추적한다. 이외에도, 영국 미술 전문매체 ‘아트리뷰(Art Review)’가 선정한 ‘2017 Power 100’에서 1위를 차지한 세계적인 작가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지난해 카셀 도큐멘타에 참여한 사진작가 울리히 뷔스트(Ulrich Wüst), 세계적인 영화감독 샤탈 애커만(Chantal Akerman), 라스 폰 트리에(Lars von Trier)의 작품들도 2018 부산비엔날레를 찾는다. 또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주제와 연관된 신작들을 선보일 예정인데, 특히 국내 작가들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띈다. 지난 2015년 발표한 ‘만일의 약속’을 재구성한 작업을 선보이는 임민욱 작가는 분단을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기 보다는 가장 가까이에 있



지만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존재하지 않으나 평행하는 삶에 대해 주목한다. 중국과 구소련에 존재하는 한국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주황은 이들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의 흔적을 통해 분단 이전의 우리의 삶을 상기시킨다. 부산 출신의 정윤선 작가는 한국전쟁 초기에 부산에서 발발한 비극적 역사인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관객들과 함께 직접 찾아가는 '셔틀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음악가와 미술가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 이민휘, 최윤은 2018 부산비엔날레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주제가 및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다국적의 작가들로 구성된 콜렉티브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물리적, 이념적 거리를 초월하고 팀을 형성한 이들의 작업은 '분리된 영토'를 넘어 찾을 수 있었던 의식의 연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과 스위스의 마우리시오 디아스, 발터 리드베그, 이란과 미국 국적의 라민 & 로크니 헤라지디, 헤삼 라흐마니안, 베트남과 미국의 더 프로펠라 그룹, 키프로스국과 미국의 바젤 압바스, 루안 아부라암, 미국과 캐나다의 린+람 등 총 5팀의 작품이 관객과 만난다.



# Divided We Stand

9월 8일(토)-11월 30일(금)  
 부산현대미술관,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6천원, 어린이 4천원  
 (9월 7일 개막전까지 예매시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어린이 3천원)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503-6111  
[www.busanbiennale.org](http://www.busanbiennale.org)

- 1 마우리시오 디아스, 발터 리드베그 <Cold Stories>
- 2 민영 <Tales from the Bamboo Spaceship>

특히 올해 비엔날레부터는 전시공간을 지난 6월 개관한 부산현대미술관으로 옮긴다.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공립 현대미술관으로, 설계 당시부터 부산비엔날레 전용관으로 기획된 바 있다. 부산현대미술관과 더불어 부산의 주요 도심 중 한 곳인 남포동 인근에 위치한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도 이번 부산비엔날레의 개최지로 새롭게 선정됐다. 지난 1963년 완공된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한국 건축가 1세대인 이천승 선생이 설계한 건물로 근대적 조형미와 기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3년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70호로 지정된 바 있다. 부산비엔날레는 그동안 부산지역의 곳곳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면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조명 받지 못했던 부산의 새로운 장소들을 발굴, 소개해왔다. 특히 2016 부산비엔날레 개최를 통해 F1963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키며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고, 부산진역사(2012년), 광안리 미월드(2012년, 2008년), 수영요트경기장(2010년) 등 평범했던 시설들을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 시킴으로써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 섬세하고 균형잡힌 앙상블의 무대 2018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_아베그 스트링 콰르텟



◆ .... 음악평론가 박진홍

부산 최초의 실내악 전용 연주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부산문화회관은 이를 기념하여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아베그 스트링 콰르텟,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등 총 11팀의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아름다운 실내악의 향연을 펼쳤다.

필자는 첫 날인 15일 연주를 찾았다. 이날 연주를 선보인 아베그 스트링 콰르텟은 바이올린 이석중, 반선경, 비올라 진덕, 첼로 윤여훈 등 4명의 젊은 연주자들이 2015년 4월 창단 이후 좋은 연주를 선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아베그 스트링 콰르텟은 첫 곡으로 휴고 볼프의 ‘이탈리아 세레나데’를 연주했다. 독일 작곡가 볼프는 가곡을 비롯해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그가 가진 문학적 소양을 음악에 잘 접목한 사람이다. 리드미컬하고 경쾌하게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탈리아 시골 동네 어디쯤, 장난꾸러기 아이가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떠올랐다. 음악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구조가 가진 완급과 흐름을 세밀하게 다루지 않으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아베그 스트링 콰르텟은 이 작품이 가진 문학적 표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음 하나하나에 대한 섬세함과 균형 잡힌 소리의 안배를 통해 훌륭한 연주를 보여 주었다.

두 번째 연주곡은 모차르트의 ‘불협화음’이었다. 선배이자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이든에 대한 존경과 우정의 표현을 느낄 수 있는 이 곡은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6곡 중 유일하게 서주를 가지는 작품이다. 모차르트는 이 서주 부분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불협화음을 활용하는 실험성을 보여 주었다. 첼로가 담담

하게 시작하는 일정한 리듬 위에 불안정한 바이올린의 심각하면 서도 드라마틱한 선율이 흘러 나왔다. 하지만 불협화적인 서주가 끝나고 이내 모차르트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서정성, 경쾌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곡의 전체 흐름 안에서 느낄 수 있었다. 2악장에서는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만났던 모차르트의 유머러스함과 발랄함,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진지한 면모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3악장과 4악장에서는 셈여림의 완급 조절과 곡의 흐름에 따른 분위기 전환이 아주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마지막 곡으로 모리스 라벨의 현악 4중주 바장조가 연주되었다. 이 작품에는 드뷔시와 구별되는 라벨만의 인상주의적 색채감과 기법이 풍부하게 배어 있다. 곡 전체에 걸쳐 날개의 추억들이 하나씩 기억의 창에 끈끈하게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연주였다. 1악장에서는 음색에 있어 짙은 질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비올라와 첼로의 음색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2악장은 강렬하고 리드미컬한 피치카토로 시작하였다.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는 것 같이 달려가는 앙상블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빠르기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대비는 긴장과 이완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어 최고의 몰입도를 이끌어 냈다. 3악장에서는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게 해 주는 첼로가 두드러지고 조력하는 다른 악기들의 역할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4악장에서는 작은 한 조각의 리듬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셈여림의 완급 조절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젊은 연주자들이 만들어 내는 섬세하고 균형 잡힌 앙상블은 방학과 휴일을 맞아 챔버홀을 찾은 많은 관객들에게 실내악의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 일상에 숨어 있는 꿈을 찾는 상상력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작가 퀴틴 블레이크展



◆ ……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이수진

“그림만으로도 감동을 주고 진솔한 감정을 이끌어 낸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작가 퀴틴 블레이크> 전시장 입구에서 만날 수 있는 글이다. 그림을 보면 감동이 밀려오고 뒤이어 진솔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뜻인 것 같다. ‘정말 그럴까?’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

블레이크는 영국의 유명한 <핀치매거진>에 삽화를 실으면서 그림을 시작했다고 한다. 고전문학에도 삽화를 그린다. 그러다 작가와 협업으로 이야기를 완성하는 작업도 한다. 블레이크가 글에다 그림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작가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를 작가와 협업한다. 블레이크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캐릭터를 상상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혼자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으로 그 이야기를 보여준다. 블레이크는 이 작업으로 글을 쓰는 동화작가가 아니라 그림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화작가가 되었다. 블레이크는 책에서 빠져나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삽화를 그리기 시작한다. 일상세계에 그의 상상력을 풀어 놓는 것이다. 런던에 있는 병원에 그림을 그리고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게 다가간다. 뿐만 아니라 런던 킹스크로스 역에 5개의 대형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그림의 제목들도 재미있다. ‘스쿠터를 타고 가는 매그놀리아 씨와 아이들’, ‘침대에 누운 매그놀리씨와 부엉이들’,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영장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매그놀리아씨’, ‘온실 속 앵무새들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는 뒤풍 교수님’, ‘욕실에서 앵무새들을 찾는 뒤풍 교수님’, ‘요정보장 소녀는 멋지게 차려입은 엄마에게 어릿광대를 소개하지만, 지지분하다며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엄마’, ‘어릿광대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장난감

들도 구해주기로 한 소녀: 유모차를 끌고 거리로 나서는 소녀와 어릿광대’, ‘각자 나름의 이동수단으로’ 등등, 그림의 제목만으로도 무슨 이야기인지를 대략 상상할 수 있다. 물론 그림을 본다면 그 상상력은 더욱 다채로운 힘을 가진다. 블레이크가 그의 독특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다. 블레이크의 그림, 그 그림 여기저기서 꿈틀거리는 상상력은 우리의 일상 속 숨어 있는 상상력,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상상력이다. 어릴 적 누구나 꿈꿔 봤던 이야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꿈꾸는 이야기, 소심함과 용기부족으로 숨겨 놓은 이야기, 이제는 내가 꿈꾸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의 그림을 하나둘씩 보기 시작하면 몸에서는 일상의 꿈, 상상력을 자극하는 세포들이 깨어나는 것을,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법을 믿는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법을 알아볼 수 없다(-퀴틴 블레이크의 영원한 파트너 로버트 달).”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작가 퀴틴 블레이크>를 만나면, 우리 혹은 우리 사회가 마법을 믿는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잊어버린 상상력을 다시 만나는 일은 우리안의 진솔함과 만나는 일이다. 퀴틴 블레이크는 그림만으로 진솔한 감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우리안의 진솔함을 만나는 길을 열어준다.<sup>1)</sup> 전시장을 다 돌고 나면 차분하고 냉정했던 전시공간은 관람자의 몸을 통해 어느새 따뜻하고 다채로운 상상력의 공간으로 변한다.

1) 이번 전시는 부산시민회관과 KT&G 상상마당이 공동주최했다. 이 두 기관의 협업은 부산 시민을 현실적인 상상력의 세계로 데려 간다. 부산시민회관은 이번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유시인(音遊詩人)의 숨결**  
**(The Spirit of a Troubadour)**

**일 시** 8월 29일(수)-10월 16일(화) 부산문화회관, 區 문화회관, 국립부산국악원  
**문 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8월 31일(금) 오후 7:30**  
**대극장 메인콘서트 I**  
**[개막콘서트]**

현재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향저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열리는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공연.

20세기 선구적인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1860~1911)의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 지휘/양양(Yang yang)  
 ● 입장료/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9월 8일(토) 오후 5:00 대극장 메인콘서트 V**

최정상의 피아니스트에서 지휘자로 화려하게 비상한 김대진이 이끄는 창원시립교향악단과 질버 가르부르크 피아노듀오가 함께하는 무대.

● 입장료/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9월 9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대극장**  
**드림프로젝트**

부산학생연합오케스트라 외 20개 학교 및 단체가 참여하는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 입장료/초대

**9월 13일(목) 오후 7:30 대극장**  
**메인콘서트 VI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국내외 연주자들의 경연을 통해 우수한 연주자를 발굴하기 위한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 콘서트' 본선 무대.

폴란드 출신의 지휘자이자 작곡가로, 폴란드 쇼팽국립음악원 교수로 있는 시몬 카발라의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영아티스트 부문의 박찬미(바이올린), 이예은(색소폰), 아티스트 부문의 윤수정(피아노), 홍채진(플루트), 신호은(바이올린), 김민성(호른)이 마지막 우승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 입장료/초대

**영화 속 클래식 시리즈**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

**일 시** 9월 1일 토요일 오후 1:00, 3:30 중극장  
**입장료** S석 3만원, A석 2만5천원  
**문 의**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 02-766-7623



그림을 보며 클래식을 감상하고, 음악을 들으며 미술작품을 보는 색다른 형식의 예술 융합 프로그램인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은 그동안 국내외 주요 화가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그들이 함께 고민한 예술 세계와 작품에 대한 열정, 그리고 갈등을 주제로 클래식 큐레이터(클래식 해설자)가 이야기를 풀어내며 음악과 그림 작품들을 감상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숙현 클래식 큐레이터의 명쾌한 해설로, 지난 2월 부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던 첫 번째 시리즈 '고흐 vs 고갱'과 두 번째 시리즈 '김홍도 vs 신윤복'의 이야기를 두차례 나뉘어 진행한다.

**제 1회 부산 의치대 OB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1일 토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 의치대 OB 관현악단 010-9232-0906



부산의치대 관현악단 졸업생들로 구성된 부산 의치대 OB 관현악단의 첫 번째 연주회.

부산의치대 관현악단은 지난 1973년 창단 후 힘든 학업과 음악을 병행하면서 단순한 취미활동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동료 선배들 간의 교류의 장, 대중과의 소통의 창구로 음악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창단한 후 올해 첫 무대를 갖는 부산 의치대 OB 관현악단은 앞으로 단원 및 관객들의 감수성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지휘/조희영 ● 악장/이혜진

**해금, 아쟁 그리고...**

**일 시** 9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해아연 010-8991-4148



지난 2013년 해금과 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발족한 해아연이 해금, 아쟁 중심의 새로운 어울림을 시도하며 마련하는 무대 '해금, 아쟁 그리고...'.

그동안 해금과 아쟁 인구의 저변확대와 창작음악의 지역성 지향, 전통과 창작의 조화, 다양한 음악회를 통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음악적 발전을 거듭해온 해아연은 이번 무대에서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다양한 삶, 바다와 산과 도시가 만나는 부산의 이야기를 6가지 이야기로 스토리텔링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개량악기인 '대해금'을 활용한 창현악기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더불어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곡가들과의 음악적 협업을 통해 해금과 아쟁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준다.

**(사)아지무소오페라단 제37회 정기공연**  
**Opera in concert '토스카(Tosca)'**

**일 시** 9월 4일-5일 화-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예매시 30% 할인)  
**문 의** (사)아지무소오페라단 010-8520-4649



지난 2002년 창단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오페라 저변확대에 앞장서온 (사)아지무소오페라단이 마련하는 Opera in Concert '토스카'.

'라보엠', '나비부인'과 더불어 푸치니의 3대 걸작으로 꼽히는 오페라 '토스카'는 전막에 흐르는 주옥같은 아리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예술총감독/손욱 ● 연출, 해설/장진규  
 ● 지휘/안젤로 잉골레제  
 ● 출연/김혜경, 양근화, 허동권, 양승엽, 심정보, 한정현

## 제15회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프랑스의 향기’

**일 시** 9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최낙주 010-4536-2351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한 플루티스트 최낙주 독주회. 대학 재학시절 첫 독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14차례 독주회를 가져온 최낙주는 독주회 외에도 다양한 악기와 듀오연주회, 체코 아나책 오케스트라, 경북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아트플룻, 베네스토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최낙주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멤버로 활동했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및 대학원, 동의대학교 대학원,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 피아노/장효진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3회 정기연주회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VI 마지막 순간

**일 시** 9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자신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리릭 소프라노 이명주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3회 정기연주회 ‘마지막 순간’.

‘관현악법의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해오고 있는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여섯 번째 무대인 이번 무대에서는 최수열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죽음이라는 관념을 소재로 작곡한 그의 두 번째 교향시 ‘죽음과 평화’와 슈트라우스가 완성한 마지막 작품인 ‘네 개의 마지막 노래’, 그리고 슈베르트의 낭만 가곡 ‘밤과 꿈’을 들려준다.

##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010-2547-6971



지난 1999년 광남초등학교 관현악부로 출발한 후 2007년 재학생 및 졸업생, 지도강사 등 광남가족들로 새롭게 출발한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KBS 동요대회, 유진박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부산시교육청 신년음악회, 부산청소년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요양원 방문 연주, 수재민 이웃돕기 음악회 등 음악을 통한 사랑나눔에도 앞장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윤강수의 지휘,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단원이자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 박시현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8회 정기연주회 Symphony No. 5-IV

**일 시** 9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10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작곡가들의 5번 교향곡만을 선정, 바로크에서부터 고전과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심포니 No. 5’ 네 번째 무대. 수석지휘자 김봉미의 지휘로 후기 러시아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리하르트 글라주노프의 교향곡 제5번 ‘영웅적’을 부산 초연무대로 선보이며, 소프라노 조윤정, 테너 정태성, 피아니스트 최영민의 협연으로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아이다’ 중 주요 아리아와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들려준다.

- 지휘/김봉미(수석지휘자)
- 협연/조윤정(소프라노), 정태성(테너), 최영민(피아노)

##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22회 정기공연

**일 시** 9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320-8331~3



지난 1994년부터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재능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과 문화소의 계층을 위해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온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의 22번째 정기공연. 미루샘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아시아게임 기념행사공연, 부산-후쿠오카 교류음악회, 사회복지시설 방문공연 등 다양한 공연활동과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 지휘/한정현 ● 반주/최승희
- 찬조출연/테너 허동권, 루미에르 앙상블

## 2018 현대무용단 자유 정기공연

**일 시** 9월 13일 목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현대무용단 자유 010-8541-3428



지난 1995년 창단 이후 부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부산 현대무용단 자유의 2018년 정기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임종, 수시, 발상, 부고 순으로 진행되는 장례식 첫째날의 절차 속에서 죽은 이에 대한 애도와 슬픔을 춤으로 표현한 ‘장례식의 첫째 날(안무/박근태)’과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잃어가며 마치 하나의 공장을 돌리기 위한 기계 부품으로 전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무너진 걸개, 무더진 걸개(안무/이연주)’, 삶의 경험으로서의 움직임은 탐색해보는 ‘시선(안무/안선희)’ 등 3개의 창작춤을 선보인다.

부산문화회관

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일 시 9월 13일 목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무료
문 의 (재)강림문화재단 637-5678



지난 2011년 문화를 통한 소통을 나누고자 출범한 (재)강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자연에 대한 영감으로 창작된 인상주의 음악/미술 작품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낸 이번 무대는 바리톤 박대용과 피아니스트 임수정, 바이올리니스트 임흥균, 첼리스트 강찬욱이 출연,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된다.

프로그램

- 드뷔시/피아노 트리오 사장조 L.3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등
• 사회/손지현(TBN 아나운서) • 반주/최승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공연예술 전위 '신의 아그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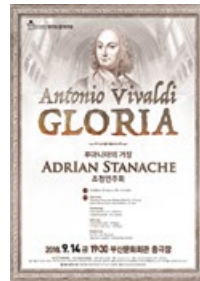
일 시 9월 13일-14일 목-금요일 오후 7:30, 15일 토요일 오후 3:00, 6:00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파격적 소재와 더불어 인간과 신의 관계, 종교와 믿음에 대한 질문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연극 '신의 아그네스'. 뉴욕의 한 수녀원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희곡작가 존 필마이어가 쓴 '신의 아그네스'는 1982년 봄 브로드웨이 무대에 처음 올려진 이래 전 세계에서 공연되며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를 인정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공연예술 전위 대표인 전승환이 연출하고 송순인 전 부산시의회 의원, 김지현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 안필자 배리어프리영상포럼 회장 등 독특한 이력을 지닌 세명의 배우가 호흡을 맞춘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72회 정기연주회 루마니아의 거장 아드리안 슈타나케 초청 연주회

일 시 9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루마니아 국립 올레그 다노브스키 콘스탄짜 오페라합창단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아드리안 슈타나케의 객원지휘로 마련되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72회 정기연주회. 아드리안 슈타나케는 지난 1993년 루마니아 국립 크라이오바 오페라 젊은 지휘자상을 비롯해 헝가리, 우크라이나, 폴란드, 불가리아 등에서 오페라 문화상과 오페라 예술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제이자 음악가였던 비발디가 남긴 대표적인 종교 성악곡인 비발디의 '글로리아 라장조 RV589'로 꾸며지는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가곡에서부터 오페라 아리아, 성가곡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즐거운 콘서트 '만남'

일 시 9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학생 본인 5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잊혀진 계절'의 주인공 가수 이용과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온 앙상블포유가 마련하는 감성무대, 즐거운 콘서트 '만남'. 초가을의 길목에서 만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한층 더 깊어진 감성을 선사할 가수 이용과 음악감독 나운규를 주축으로 열린음악회를 지향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고 있는 앙상블포유, 관객층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청중들에게 감동과 힐링을 주는 누벨앙상블이 가을의 서정에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추억과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장재혁 클라리넷 리사이틀 Opera in Clarinet

일 시 9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을 역임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 독주회. 클라리넷의 본고장인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파리 국립음악원 슈페리오과정과 파리 국립고등음악원학, 석사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장재혁은 그동안 파리오케스트라, 라디오프랑스로케스트라, 유럽챔버오케스트라 등 정상급 연주단체의 객원연주자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귀국 후 매년 독주회를 비롯해 아베그 트리오, 트리오 레자미 창단 및 실내악 활동으로 관객들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장재혁은 2017년부터는 영남대학교 관악합주 지휘자로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 사회/손지현(TBN 아나운서) • 반주/최승희

박시하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9월 16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박시하 010-9650-0720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와 데트몰트 국립음대(실내악)를 졸업하고 현재 아트 브릿지 대표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시하 독주회. 이탈리아 파도바 국제음악콩쿠르에서 2위하고 대한민국 미래비전 바이올린 교육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시하는 부산극동방송 '다정한 클래식' 고정패널(2018), CGNTV 김영우의 스윗사운즈(2017), TBC 청춘스키링(2017), CBS, 극동방송, CTS 라디오 초대석에 출연한 바 있다. 박시하는 현재 경북예술고, 부산예중고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김영실 • 기타/김경태



## 제5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일 시** 9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음악협회 634-1295



부산음악협회(회장 고정화)가 지역 창작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 전 장르에 걸쳐 2,000여곡이 넘는 작품을 작곡한 원로작곡가 김국진을 비롯해 Anti Stimmung 회원,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진소영, 부산전자음악협회 창립 회장(현 고문), 경성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최인식, musiCon 음악감독, 향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김보현, 루체데 음악연구소 소장인 백현주 등 6명 작곡가의 창작곡을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가 지휘하는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 지휘/윤상운
- 피아노/강남길
- 해설/백현주(음악평론가)

## 소프라노 강소영 독창회

**일 시** 9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강소영 010-3645-7953



아름다운 목소리와 풍부한 감성의 소프라노 강소영 독창회. 오랜 시간, 다양한 무대에서 기량을 갈고 닦은 실력을 부산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1부에서는 부산에서 잘 연주되지 않은 고음악을, 2부에서는 음악사에 있어 각 시기별로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만날 수 있다.

특히 1부에서는 바로크시대 초기와 후기의 세속 음악을 그 당시 사용된 악기인 쳄발로와 비올라 다 감바의 협연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2부에서는 소프라노와 피아노, 클라리넷의 앙상블로 이루어진 '바위 위의 목동'을 들려준다.

- 비올라 다 감바/강지연
- 쳄발로/이승민
- 클라리넷/이환석
- 피아노/최진현

## 2018 부산사랑음악회 부산 유라시아 그리고 북극항로

**일 시** 9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의** 부산MBC 760-1094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문화수도 부산을 꿈꾸며 부산MBC와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2018 부산사랑음악회 '부산 유라시아 그리고 북극항로'.

이번 음악회는 북극해를 통한 유럽과 아시아 및 아메리카를 아우르는 광대한 해상 항로로 주목받고 있는 북극항로의 활성화 등 북극 이슈와 공동 연계한 음악예술 협업으로, 부산의 경제, 문화, 해양이 함께하는 글로벌 부산으로의 미래를 제시한다. 특히 부산이 배출한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미래 부산을 이끌고 갈 젊은 거장들이 출연, 부산의 미래를 음악으로 향한다.

세계를 무대로 빛나는 예술성과 이지적인 연주로 성실한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휘자 오충근은 현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74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9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최근 런던 어니스트 리즈 재단으로부터 젊은 지휘자상을 수상한 지휘자 이민형의 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74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으로,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5명의 연주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

- 지휘/이민형
- 바이올린/심해수(부산대학교 4학년, 부산솔로이스츠 앙상블 단원), 한은지(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
- 비올라/박수정(부산대학교 1학년)
- 플루트/심은아(인제대학교 3학년,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 단원)
- 피아노/김성주(경성대학교 3학년)

재 한국지휘자협회 부회장,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맡고 있으며, 2009년 부산월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BWPO)를 창설, 아시아 주요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부산·경남 출신 음악가들이 모여 다양한 가치 창출로 사운드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은 2017년 소피아 비르트오조 국제콩쿠르 2위(불가리아), 2017년 브람스국제콩쿠르 바담레핀(Vadim Repin) 특별상 수상(오스트리아) 등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2017년 프랑스 Banque Populaire재단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다른 협연자인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은 러시아 대표적 음악전문학교인 노보시비르크 중앙 영재 음악학교를 입학,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후 프랑스 드동 국립음악원, 말메종 국립음악원, 파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미국 USC 대학원에서 수학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프로그램

- 모차르트/교향곡 제25번 작품 183
-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작품 622
- 차이콥스키/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35
- 차이콥스키/백조의 호수 작품 20 제3막
- 예술감독/오충근(지휘)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 제2회 Solacielo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Solacielo가 선사하는 '그대, 그리고 사랑의 노래'

**일 시** 9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Solacielo 성악연구회 010-2330-0994



미국,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 해외에서 유학하고 풍부한 무대 경험을 가진 성악가들과 피아니스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Solacielo 성악 연구회의 무대.

지난 2015년 결성된 후 지난해 11월 창립음악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Solacielo 성악 연구회는 최근 연극, 현대무용 전문가를 영입, 새로우면서도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르디, 도니체티, 비제, 모차르트, 레온카발로 등 사랑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을 선곡,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부산문화회관

어린이뮤지컬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갓-세기의 대결'

일 시 9월 2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2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VIP 6만5천원, R석 5만5천원
문의 락엔터테인먼트 1566-9151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동명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세계 최초 제작, 선보이는 어린이뮤지컬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갓-세기의 대결'. 전 세계 최강 블레이더들의 박진감 넘치는 베이(뽀이) 배틀을 그린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갓'은 세계 최고의 블레이더를 꿈꾸는 강산이 베이 배틀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이번 '세기의 대결'편에서는 360도 회전 가능한 대형 베이 배틀 경기장을 무대 위에 구현하고 내외부 LED 장치와 레이저를 이용해 생생한 경기장과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으로 실감 나는 배틀 장면을 선보인다.

신정운 피아노 리사이틀 프랑스 음악여행

일 시 9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탁월한 음악적 감각을 바탕으로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해온 피아니스트 신정운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과정 이수 중 도독, 만하임-하이델베르크 국립음대에 최연소로 입학한 후 베를린 예술대학에 편입, 디플롬 및 동대학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신정운은 Berlin Das Symphonie Orchester와의 성공적인 협연으로 독일 현지에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독주회와 독일 페가수스 현악사중주과의 실내악 연주로 폭넓은 음악세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신정운은 현재 동의대학교에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라모, 뒤파에, 드뷔시, 라벨 등 프랑스 작곡가의 작품을 통해 프랑스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이소진, 표세구 피아노 듀오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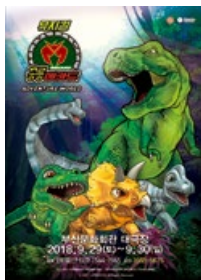
일 시 9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표세구 010-2789-3900



경남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이자 앙상블 하모니아 대표, 미시간 피아노 카메라타 단원으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이소진과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강의전담교수이자 부산시 예술영재원, 부산예중·고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표세구가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무대. 이소진은 탁월한 음악성과 견고한 피아니즘을 구사하는 연주자로, 표세구는 탁월한 음악적 센스와 따뜻한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다.

뮤지컬 '공룡메카드 어드벤처 월드' -부산

일 시 9월 2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3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5천원, S석 4만5천원
문의 (주)하늘이엔티 1688-6675



국내 최대 규모, 초대형 블록버스터 어린이 뮤지컬 '공룡메카드 어드벤처 월드' 부산무대. 어린이들에게 공룡덕후 입문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공룡메카드'를 뮤지컬로 제작한 '공룡메카드 어드벤처 월드'는 국내외 공룡 전문가들이 손수 만든 타이니소어는 물론 길이 5M에 육박하는 초대형 공룡까지 무대에 다채롭게 등장, 귀여운 타이니소어들의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와 함께 공룡들의 박진감 넘치는 배틀 액션이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4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8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일 시 9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홍희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17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로, 오디션을 거친 6명의 연주자의 뛰어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
• 지휘/홍희철
• 가야금/강동희(서울예술대학교 2학년), 강윤진(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

- 거문고/최현정(경북대학교 국악학과 3학년)
• 피리/안하운(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 창원국악관현악단 단원)
• 해금/강민희(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 가곡전수관 정음 단원)
• 양금/조재은(부산예술대학교 1학년, 한국양금양상블, 청춘악당 연 단원)

피아니스트 김정원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그랜드 피날레'

일 시 10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학생 30% 할인)
문의 WMN 744-4780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전하는 슈베르트 최대 걸작의 감동적인 선율,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그랜드 피날레'.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대로, 가장 슈베르트다운 걸작으로 꼽히는 마지막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제21번 D.960'을 비롯해 소나타 제6번과 제17번을 김정원의 절제되고 정갈한 터치와 균형감있는 연주로 감동을 선사한다. 섬세한 감성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음색과 강렬하면서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김정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동세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일본 및 유럽, 미국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부산·홍콩 교류음악회

일 시 9월 1일 토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인터내셔널뮤직소사이어티 010-7545-8176



음악을 통한 아시아 지역 간의 문화적 교류와 지역 음악가들의 연주의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무대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한 부산·홍콩 교류 음악회.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Hong Kong Academy for Performing Arts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Karl Lo,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리, 부산교육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성민주가 출연, 음악을 통한 문화교류의 장을 펼친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Orchestra+ 이별의 순간

일 시 9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부산시립교향악단 초청으로 마련되는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Orchestra+ 이별의 순간'.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등 영화, 드라마, CF 등의 주제가곡으로 사용되어 친숙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제2번' 중 '왈츠 II'와 죽음이라는 관념을 소재로 작곡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두 번째 교향시 '죽음과 평화'를 들려준다.

타이틀곡인 슈트라우스의 '죽음과 평화'는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을 통해 '관현악법의 천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을 소개해오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병상에 누운 한 남자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그려내며 다양한 주제들과 선율들을 관현악 기법을 통해 다채롭고 극적으로 펼쳐내고 있다. 특히 연주에 앞서 부산시립극단 수석 황창기가 '길'로 상징되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극무대로 선보인다. (사)부산배우협회 부회장, (사)부산연극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황창기는 연극 '타인의 눈', '조선제왕신위', '수전노', '고도를 기다리며', '맥베스' 등 100여편의 연극에 출연했으며, 2002년 제5회 PSB 문화대상, 2003년 제3회 부산MBC 문화대상, 2004년 제22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연기상, 2011년 고마나루 전국 향토연극제 최우수연기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제2번 중 왈츠 II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교향시 '죽음과 평화' 작품 24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2018 시민뜨락축제

일 시 9월 7일(금)-10월 12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야외광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2-5200



매주 금요일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2018 시민뜨락축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무대로, 올해 상반기에도 6차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면서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 9월 7일(금) 민주신티리오, 정다혜댄스컴퍼니
9월 14일(금) 부산팝스앙상블
9월 21일(금) 소리연구회 소리숲
9월 28일(금) 이소정 경기민요, 그룹 내살차이
10월 5(금) 부산시립무용
10월 12일(금) 폴란드그룹 볼로시(Vo-osi), 창작국악단 젊은풍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2회 정기연주회
아름다운 동요의 세계 두 번째 이야기
친구들이 모여라

일 시 9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17, 3170



창작동요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창작곡을 발표해 온 지역 동요작가들의 창작곡을 엄선하여 들려주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2회 정기연주회 '친구들이 모여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어린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꾸준히 창작곡을 발표해 온 동요사랑회 회원들의 2018년 신작 창작곡과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창작동요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 창신초등학교 어린이합창단, 러브 엔젤스 중창단이 출연, 어린이들의 동심을 담은 다양한 곡들을 합창곡과 중창곡으로 들려준다.

인제예대 클래식기타 동아리
여섯 가락의 울림 제35회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15일 토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여섯 가락의 울림 010-6378-6971, 010-7679-2287



인제예대 클래식기타 동아리인 '여섯 가락의 울림'이 마련하는 35번째 정기연주회.

여섯 가락의 울림 4기 출신으로 의사이자 클래식기타리스트로도 활동인 광승웅의 류트 연주를 비롯해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클래식기타 솔로, 중주, 합주로 들려준다.

- 단장/윤지수 • 회장/이현우
• 특별출연/광승웅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제3회 부산 솔로리스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시그니처 콘서트 3 with 최영식  
슈베르티아데

**일 시** 9월 2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부산 솔로리스트 앙상블 010-8524-0069



2015년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 솔로리스트 앙상블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멤버 개인의 색채가 어우러지면서도 조화로운 앙상블을 추구하는 부산솔로리스트앙상블은 소규모 챔버 오케스트라에서부터 현악앙상블, 현악사중주, 피아노트리오 등 다양한 편성으로 정통 클래식 뿐만 아니라 영화음악, pop, 국악과의 크로스오버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다. 경북도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최영식과 함께하는 시그니처 콘서트 세 번째 무대로, 슈베르트 '마왕',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현악4중주 '죽음과 소녀'를 들려준다.

배우 이창원,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페르킨트의 귀향

**일 시** 9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14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입장료** 초대(선착순 무료입장)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지난 2009년 창단된 후 폭넓은 활동을 펼쳐오며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사)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가 2018 구·군 문화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마련하는 클래식 뮤지컬 콘서트 '페르킨트의 귀향'.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홍성택이 지휘하고 배우 이창원이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그리그의 '페르킨트' 모음곡과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을 들려준다.

- 지휘/홍성택
- 특별출연/배우 이창원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26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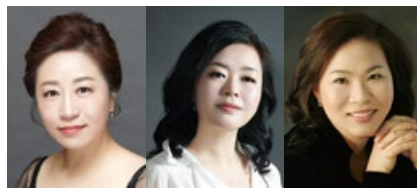


**5일(656회) 김영실 피아노 독주회**  
탁월한 음색과 풍부한 음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영실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한 김영실은 현재 앙상블 하모니아, 부산 예술아카데미연구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The Pianissimo 예술학회 회원으로 서울과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2일(657회) 슈베르티아데:죽음보다 아름다운 희망, 음악(시리즈 1)**

부산반주연구회 제9회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반주연구회 010-5133-8646



지난 2010년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반주전문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부산반주연구회의 정기연주회. 실내악, 가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서 꼭 필요한 반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음악발전을 위해 창단된 부산반주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 곡으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 무대에서는 베르디 오페라 '돈 카를로' 갈라무대가 펼쳐진다.

- 고문/제갈삼, 나광자
- 회장/안선애
- 출연/김경미, 김성희, 김주리, 박미은, 박필은, 안선애, 안준희, 유혜진, 이화영선 외

2018년 슈베르트 서거 190주년을 맞아 피아니스트 이유현, 한상민, 김은정, 플루티스트 황미리, 소프라노 권미현, 바리톤 시영민이 들려주는 슈베르트 음악의 밤. 슈베르티아덴(Schubertiaden)은 '슈베르트의 밤'이라는 뜻으로 슈베르트와 그를 사랑하고 후원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읊으며 보낸 작은 모임의 이름이다.



19일(658회) 소프라노 박소영&바리톤 채범석 듀오 콘서트

부산대학교 동문인 소프라노 박소영과 바리톤 채범석 듀오 무대. 박소영은 이태리 제5회 'Johannes Brahms' 국제콩쿠르 가곡부문 1위, 오페라 부문 3위, Citta di Manerbio, Lario in Musica, Pietro mongini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채범석은 현재 부산예중어머니합창단, 서구여성합창단, 서구소년소녀합창단, 부산사대부고동문합창단 지휘자, 효원성악회, 부산남성성악가앙상블, 이태리음악연구회, 온디도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피아노/안준희

성원아트홀 개관 기념음악회

**일 시** 9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8일-9일 토요일 오후 5:00, 14일 금요일 오후 7:30, 15일-16일 토요일 오후 5:00 성원아트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성원아트홀 706-3989



성원타공주식회사(대표이사 성기인)가 강서구 명지신도시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설립한 성원아트홀 개관 기념음악회.

7일(금) 오후 7:30, 8일(토)-9일(일) 오후 5:00 목관트리오와 오페라 갈라콘서트

Sum 목관트리오와 아지무스오페라단 드림싱어즈가 함께하는 무대.

14일(금) 오후 7:30, 15일(토)-16일(일) 오후 5:00 피아노트리오와 뮤지컬 갈라콘서트

Selah 피아노트리오와 아지무스오페라단 드림싱어즈의 무대.

- 예술총감독/손욱

## 제55회 향사회 정기 작곡발표회 향사회, 부산의 시인 10인과 함께 노래하는 ‘꽃의 향연’

**일 시** 9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향사회 010-4542-3560



지난 1974년 우리나라 서양음악 작곡계 2세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이상근 선생과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향사회의 2018년 정기 작곡발표회. 꽃을 소재로 부산 시인 10명의 시에 곡을 붙인 다양한 성악곡을 감상할 수 있다.

- 작곡/강영화, 박선혜, 권유미, 노선경, 박정미, 배진의, 정혜옥, 진소영, 하순봉, 황장수
- 시/박미경, 선용, 송정우, 신익교, 염계자, 윤홍조, 이복심, 이자경, 최인숙, 황미숙
- 연주/부산지휘자합창단(지휘/김강규, 김성배(테너), 이영옥(피아노), 한수지(해금), 김미진(소리)
- 시낭송/정마린

## 스페이스 음 음악회

**일 시** 9월 7일(금), 13일(목), 18일(화) 오후 8:00  
스페이스 음  
**입장료** 전석 1만원(茶 제공)  
**문의** 스페이스 음 557-3369,  
www.spaceum.itrocks.kr



**7일(금)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의 음악 이야기**  
부산예고 재학 중 러시아로 유학, 노보시비르스크 특별음악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 르몽 국립음악원 졸업, 말메종 국립음악원, 파리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대학원에 재학중인 차세대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의 무대.

**프로그램**  
슈만/3개의 로망스 작품 94  
모차르트/클라리넷협주곡 가장중 K.622  
벨라 코박스/마뉴엘 드 파야를 위한 오마주 등

## 13일(목) 오선지 위에서 함께 노닐다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음악협회 사무국장, 한국가톨릭작곡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김종완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영재교육원 강사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안나의 무대.

**18일(화) Quartet Leporem의 ‘가을밤 영화 한 편’**  
피아니스트 조아라, 바이올리니스트 김예린, 장혜진, 첼리스트 김윤지로 결성된 Quartet Leporem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에서부터 뉴에이지음악, 영화음악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꿈을 꾸 후에(포레 곡), 라스트 카니발(어쿠스틱카페 곡), 사계(피아졸라 곡), 영화음악 ‘라라랜드’, ‘비긴어게인’ OST,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 ‘인생의 회전목마’, 왈츠(쇼스타코비치 곡, 최영민 편곡) 등

## 콘브리오오케스트라 From ‘the New World’

**일 시** 9월 8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콘브리오오케스트라 010-4455-2792



2012년 11월,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부산대학교 재학생으로 창단한 콘브리오오케스트라의 무대. 이탈리아어로 ‘생기있게’라는 뜻을 지닌 콘브리오(Con brio)오케스트라는 항상 생기있게 음악을 즐기려는 마음으로, 매주 2회 연습을 가져오고 있다.

2013년 3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콘브리오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5번 ‘신세계로부터’를 비롯해 스테타나 ‘나의 조국’ 중 ‘물다우’, 베버 ‘클라리넷협주곡 제2번 작품 74’, 영화 ‘라라랜드’ OST 등을 들려준다.

- 지휘/정운봉
- 협연/김병진(클라리넷)

## 포르테 디 콰트로 단독 콘서트 ‘명작’

**일 시** 9월 8일 토요일 오후 6: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VIP 12만1천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  
**문의** (주)WSM 1566-5490



‘천상의 하모니’ 포르테 디 콰트로 단독 콘서트 ‘명작’ 부산무대.  
JTBC의 클래식 크로스오버 오디션 프로그램인 ‘팬텀싱어’ 초대 우승팀으로 데뷔한 후 크로스오버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포르테 디 콰트로의 김현수, 손태진, 고훈정, 이버리 등 네 멤버의 완벽한 하모니와 정제된 음악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을 형성해오고 있다.

국내 공연계의 블루팀으로 떠오르며 한층 견고해진 화음과 짙은 감성으로 관객과 만날 이번 무대에서는 크로스오버 보컬답게 오페라 아리아에서 가곡, 영화음악, 가요 등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 고레아오페라단 2018년 정기공연 푸치니 오페라 ‘마농 레스코’

**일 시** 9월 10일-12일 월-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학생 2만원  
**문의** 고레아오페라단 010-2400-5271

고레아오페라단이 부산 초연무대로 선보이는 푸치니 오페라 ‘마농 레스코’.  
지난 2004년 레온카발로 오페라 ‘팔리앗치’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공연을 통해 오페라의 저변확대에 힘써온 고레아오페라단은 그동안 오페라 뿐 아니라 문화소외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솔리스트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고레아오페라단은 지난 2006년에도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를 부산 초연으로 무대에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 출연/김현애, 차경훈, 최대우, 박기범(10일), 이은미, 양승엽, 유용준, 안상철(11일), 강나래, 김화정, 안세범, 박상진(12일)

기타공연장

2018 두레라움 명품 클래식 시리즈 IV 백혜선의 베토벤:비창과 열정

일 시 9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아트메니지먼트 740-5833



섬세함과 열정을 겸비한 우리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들려주는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전곡 연주회' 부산무대.
지난 199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1위 없는 3위 수상을 시작으로 쾨넨 엘리자베스 콩쿠르, 리즈 콩쿠르 등 권위 있는 대회에서 잇달아 입상하며 일찍이 주목받기 시작한 백혜선은 2002년에는 일본 사이타마현 문화예술재단이 꼽은 현존하는 '세계 100대 피아니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베토벤 소나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제8번 '비창', 제23번 '열정' 외에도 소나타 제4번과 제8번을 들려준다.

2018 행복한 추석을 위한 을숙도 힐링 콘서트

일 시 9월 11일-14일 화-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천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5512



중광지곡 중 상령산, 천년만세 양청도드리, 김죽파류 중모리, 김병호류 중모리, 우륵의 춤(황의종 곡), 춘설(황병기 곡), 아리랑(김계옥 편곡), 흥금산의 백도라지(박위철 편곡)
● 가야금/김남순, 하지희
● 장구/신호수

국악 명인, 명창을 초청, 국악의 아름다움과 신명을 선사하는 을숙도 힐링 콘서트.
11일(화) 국악기 음악 여행 I -가야금편 김남순-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김남순 교수와 함께 떠나는 가야금 음악여행.
프로그램

12일(수) 금정악화-정순임 명창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및 강사들로 결성된 후 매년 정악과 민속악을 기반으로 수준높은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금정악화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보가' 예능보유자인 정순임 명창이 함께하는 무대.

프로그램
태평춘지곡, 생활동주, 단가 '인생백년', 판소리 '흥보가' 중 '놀부 화초장 대목', 시나위

13일(목) 라일락 꽃이 피었습니다 II

국악을 근간으로 현대정서에 맞는 한국음악을 연주하는 국악그룹 라일락의 무대.
젊은 날의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꽃말을 지닌 라일락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담은 창작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Blooming, Lilac, 황(黃), 꽃별천지, 이문세연곡, Flying, 강녕

14일(금) 명인초대-한세헌 피리의 여정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사)서용석계 한현세류 피리산조보존회 이사장으로 있는 피리명인 한세헌 초청 무대.

프로그램
피리·아쟁산조 병주, 한세현류 피리산조, 김일규류 아쟁산조, 태평소 시나위
● 아쟁/최종관 ● 고수/강형수

2018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 브런치 9월

일 시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커피 제공)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영화음악 감독,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국내 음악계에서 감성 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 김정범의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콘서트.
영화음악감독으로 활동중인 김정범은 현재 성신대학교 전임교수로 재직중이며 SBS 파워FM '애프터클럽'의 DJ로도 활동하고 있다.
9월에는 영화 '허삼관'의 작곡과 프로듀서를 맡은 푸디토리움 김정범이 음악의 제작 뒷이야기와 함께 영화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지휘자 정두환이 지휘하는 두레라움 오케스트라가 영화 '허삼관'의 주요 사운드트랙을 들려준다.

후 브라스 콰이어 제6회 정기연주회 위대한 만남

일 시 9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A석 2만원, B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스페이스 옴 010-4945-6470



지난 2011년, 진지한 음악 정신을 바탕으로 부산, 경남지역의 우수 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브라스 콰이어 정기연주회.
그동안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은 후 브라스 콰이어는 5중주에서부터 20중주까지 폭넓은 구성과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음악감독을 있는 김기울의 지휘로 세계적인 호른리스트 William Purvis와 협한 음색과 동아대학교 교수이자 완벽한 기교를 지닌 첼리스트 이명진, 그리고 트럼펫 라이징스타인 권한나의 협연으로 웅장한 브라스음악의 감동을 선사한다.
● 해설/김윤선(음악평론가)

김성은 플루트 리사이틀 김성은 with Friends

일 시 9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김성은 010-6510-3445



프랑스 파리 예콜 노르말과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에서 음악공부한 플루티스트 김성은이 그의 음악친구들과 함께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프랑스 유학시절 Young International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등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성은 귀국 후 부산플루트앙상블, 아르스디버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알피네앙상블 음악감독을 역임했다.

● 피아노/박정현 ● 하프/곽정
● 플루트/이소영, 주세페 노바
● 가야금/하지희 ● 장구/송강수

## 센텀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해운대, 음비치다

**일 시** 9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센텀합창단 010-3136-7798



매년 다채로운 음악과 신선한 무대로 합창의 하모니를 선사해온 센텀합창단 정기연주회. 올해 교과서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감성훈련이 되고 기성 세대에게는 학창시절 음악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지며, 여성합창 뿐만 아니라 남성중창, 혼성합창, 어린이합창을 통해 다양한 울림으로 관객이 하나 되는 어울림의 시간을 선사한다.

- 지휘/이철성 • 반주/박재나
- 남성중창/VOX ENSEMBLE
- 어린이합창/허밍버드 센텀초 어린이합창단

##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제18회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010-6563-6692



지난 1991년 음악대학 교수, 외래교수, 전문연주가 등 전문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한국 최대 규모의 단체인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가 마련한 정기연주회. 한국피아노학회 공동회장인 김해영, 함영림, 이혜전, 김희진 교수 초청으로 화려하면서도 특별한 피아노의 향연을 펼친다.

- 연주/김해영, 함영림, 이혜전, 김희진, 윤지영, 성민주, 이아영, 김지령, 박필은, 정아연, 정은정, 최정윤, 권경미

## 2018 부산성악아카데미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15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부산성악아카데미 010-4785-9587



다양한 연주와 교육, 학술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해온 부산성악아카데미의 2018년 정기연주회. 지난 1987년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미국, 북유럽 등지에서 음악수업을 마치고 귀국한 성악인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부산성악아카데미는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영호남 교류음악회를 통해 지역간 음악적 교류를 가져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성악아카데미 창단 31주년을 맞아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코지판투테', 도니체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의 주요 아리아와 중창으로 관객과 만난다.

## 심하정 피아노 독주회

**일 시** 9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심하정 010-3284-9428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미국 뉴욕 주립대학(Purchase) 석사 및 연주자과정,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앙상블 더 블로섬 리더, 앙상블 하모니아,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부산피아노음악연구소, 부산아카데미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심하정 독주회.

심하정은 American Protégé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1등, 한국 피아노학회 주최 콩쿠르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2018 폴리포니기타듀오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15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폴리포니기타듀오 010-5198-0074



지난 2005년 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결성된 폴리포니기타듀오의 13번째 정기연주회.

독주로 표현하기 힘든 좀더 입체적인 음악적 표현을 추구하고자 '폴리포니(Polyphony)'로 이름붙인 폴리포니기타듀오는 클래식에서부터 그동안 각종 기타페스티벌 및 국제음악제 프린지 참가, 방송국 초청연주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2년과 2015년, 2016년 세차례 통영 윤이상국제음악제 프린지에 참가해 'Rising Star'로 선정됐으며, 2011년과 2015년 두차례 음반을 출시한 바 있다.

- 아코디언/송용창 • 타악/정신구

## 숨니움 앙상블 슈베르트 서거 190년 기념콘서트 part.V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일 시** 9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숨니움앙상블 010-2881-5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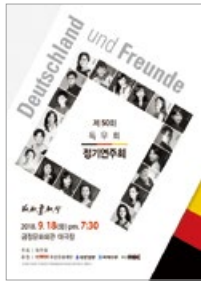
피아노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앙상블을 보여주고 있는 숨니움 앙상블(Somnium Ensemble)의 다섯 번째 무대. 작곡가 슈베르트의 서거 190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라는 주제로 대중들과 친숙하면서도 아름다운 슈베르트의 작품들을 선곡, 피아노 듀오와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와 클라리넷, 바이올린, 비올라와의 앙상블 등 다양한 연주로 들려준다.

- 출연/이해경, 진승민, 서영희, 변은석, 유지훈, 김가민

기타공연장

제50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해피클래식

일 시 9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독우회 010-9878-1973



지난 1994년 독일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후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연주 활동을 하며 대학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는 전문음악인들로 결성된 독우회의 50번째 정기연주회.

독우회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테마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났다.

- 음악감독/신애정 • 해설/정경아
- 피아노/신현희, 고태욱, 강인경, 이성미, 조혜영, 이아영, 김유진, 조아란, 조미지, 정년경, 박환희, 박아연, 이요한, 이효연, 정경아
- 플루트/장예지 • 클라리넷/원준연
- 바이올린/정진경 • 첼로/이현지

제48회 이태리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오페라를 여행하다 III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면 무도회'

일 시 9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단체 50% 할인)  
문의 이태리음악연구회 010-5239-2749

이태리에서 공부한 부산의 성악가,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이태리음악연구회의 48번째 정기연주회. 1985년 부산 최초의 유학파 음악단체로 설립된 이태리음악연구회는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교과서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이탈리아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오페라를 여행하다'는 이태리 작곡가 베르디, 푸치니, 도니체티의 음악세계를 다른색깔의 오페라를 통해 여행함으로써 다양한 음악적 색채와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표적인 로맨틱 코메디 오페라인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과 스웨덴 왕 구스타프 3세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비극적 사랑이야기인 베르디 '가면무도회'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양육진, 정성흠 듀오 25주년 기념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일 시 9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정성흠 010-8541-0105



줄리어드 동문으로 만나 오랜 친구이자 음악적 동반자로 함께 해온 첼리스트 양육진과 피아니스트 정성흠이 듀오무대 25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양육진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관현악과 교수,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음악감독으로, 정성흠은 iTrio, IPB 단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곡해석과 풍부한 음악성으로 관객의 깊은 감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완벽한 호흡과 수준 높은 연주로 들려준다.

부산신포니에타  
제91회 정기연주회

일 시 9월 30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신포니에타 010-8519-0448



지난 1986년 음악감독 및 리더로 있는 前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를 중심으로 창단된 후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매김한 부산신포니에타의 91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신포니에타는 그동안 90차례 정기연주회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비롯한 국내 우수 공연장의 초청연주, 그리고 대만, 일본, 러시아 그라스노마르스크에서 개최한 국제음악제에 초청받아 현지언론과 음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바 있다.

- 음악감독/김영희 • 지휘/박광식
- 협연/김주영(바이올린)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38회 프롬나드 콘서트  
'가을 인사 Autumn Greetings'

일 시 9월 27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1~5



기업과 예술이 만나 시민들과 소통하며 매월 마련하는 프롬나드 콘서트 9월 무대.

'가을 인사'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의 협연으로 초가을의 서정을 담은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곡을 들려준다.

연극 | Play

연극 수상한 흥신소 1탄

일 시 7월 19일(목)-9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30, 6: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가진 건 영혼을 보는 능력 뿐인 자타공인 날백수 고시생 오상우, 우연히 만난 엘리트 경영학도 출신인 영혼 김동연과 만화작가가 꿈이었던 영혼 오덕희의 제안으로 죽은 이의 이승에서의 일들을 대신 해결해주는 기상천외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귀신이 보이는 남자'라는 독특한 설정을 휴머니즘 가득한 서사로 풀어낸 코미디극 '수상한 흥신소'는 제각기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영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해준다.



## 뮤지컬 '시카고' 부산

**일 시** 8월 31일(금)-9월 9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문의** 예술기획성우 1599-1980



지난 18년간 대한민국 뮤지컬 정상을 지켜온 세상에서 가장 섹시하고 뜨거운 뮤지컬 '시카고'.

그동안 Tony, Drama Desk, Grammy, Olivier Awards 등 전 세계 최고 권위 시상식을 석권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시카고'는 지금까지 전 세계

36개국 490개 도시에서 3,100만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하는 등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사랑받고 있다. 화려한 관능의 몸짓 속에 숨겨진 통렬한 사회 풍자와 웃음, 그리고 능염한 재즈 선율과 밥 파시의 숨결이 묻어나는 안무까지 잠시도 눈을 땄수 없는 화려한 무대 가 선보인다.

## 2018 부산남구 상설공연사업 연극 이기여~ 의기여!

**일 시** 9월 6일 목요일 오후 1:30, 7: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남구청 문화체육과 607-4067



부산남구청이 임진왜란 당시 일본 왜장을 끌어들여 바다에 몸을 던진 두 기녀의 설화가 전해져오는 관광명소인 이기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한 연극 '이기여~ 의기여!'.

남구에서 활동 중인 연극인들로 결성된 남구연극회가 무대에 올린 '이기여~ 의기여!'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기대 두 기녀의 이야기를 기본 뼈대로, 역사적 고증과 문학적 상상

력을 입혀 서사적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독특한 전개 방식으로 관객들의 몰입감을 높였다.

- 작, 연출/박동민

## 극단 물음피 성스런 상담소

**일 시** 9월 6일(금)-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2:00, 5:00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전석 2만원(사전 예매시 50% 할인)  
**문의** 극단 물음피 010-4484-4626, FB.COM/QPlayer



나이 서른이 되도록 제대로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한 모태솔로 '수남'과 자타공인 연애고수 옥정의 섹시 코미디극 '성스런 상담소'. 수남은 어느 날 우연인듯 운명인 듯 만난 옥정과 기적처럼 사랑에 빠지고 옥정은 수남의 순수하고 진중한 모습에 반해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연애를 꿈꾼다. 하지만 연애 왕초보인 수남에게 모든 것은 어렵고 서툴기만 하고 옥정의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던 수남은 결국 '성스런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데... 어딘지 모르게 비밀스럽고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상담소 주인 '모연'과 그녀의 소울메이트 '미로'는 과연 수남과 옥정의 관계를 발전시킬 비법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 극단 세계 제81회 정기공연 감마선은 달무늬 얼룩진 금잔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일 시** 9월 6일(목)-1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10일, 15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무료(감동후불제)  
**문의** 가온아트홀 1600-1602



중년과 여성을 위한 연극을 제작 기획해온 극단 세계가 2018년 새롭게 선보이는 연극 '감마선은 달무늬 얼룩진 금잔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도시 한 구석의 돌연변이와도 같은 릴리의 가족, 그 중에서도 가장 돌연변이 같은 존재인 릴리를 통해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라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번 작품은 릴리의 나레이션을 중심으로,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 은유적으로 전달해준다.

- 작가/폴 진델 ● 연출/김만중
- 출연/허승연, 박정은, 강혜경, 김민지

## 힐링뮤지컬 빨래

**일 시** 9월 8일-9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서민들의 팍팍한 인생살이와 사랑을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낸 힐링뮤지컬 '빨래'.

지난 2005년 첫 선을 보인 이후 꾸준히 관객과 평단의 사랑을 받으며 일본, 중국 라이선스 진출까지 이뤄낸 뮤지컬 '빨래'는 2005년 제11회 한국뮤지

컬대상 작사상, 극본상, 2008 SFCC Awards 외신기자상, 2010년 제4회 더뮤지컬 어워즈 극본상, 작사작곡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 '2017년 제6회 예그린 뮤지컬어워드'에서 '예그린대상'을 수상했다.

- 작, 작사/추민주 ● 작곡/민찬홍
- 출연/신고은, 이준혁, 강정민, 양미경, 김희창, 김재은, 심윤보, 이태오

## 제8회 창작단막극제 나는 연출이다 -새로운 출발-

**일 시** 9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15일-16일, 토-일요일 오후 4:00 청춘나비 아트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의** 청춘나비 아트홀 0507-1313-2560, www.playnavi.com



연출가의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꿈꾸며 시작된 창작단막극제 '나는 연출이다' 2018년 무대.

지난 2011년 6명의 연출가를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창작극을 선보여온 '나는 연출이다'는 2018년 올해, 다시 첫회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연극예술의 무

대를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이면서도 실험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2018년 대한민국 트렌드 키워드'를 소재로 한 이번 창작단막극제에서는 강성우(극단 누리예), 김경익(극단 진실보, 서울), 김세일(극단 ㅅ aml, 일본), 박한별(Project JB), 김수진(창작극연구극단 수진) 등 연출가 5명의 창작극이 릴레이로 무대에 오른다.

기타공연장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일 시** 9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6일 일요일 오후 2:00, 6:3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 13만원, OP 12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의** (주)WSM 1566-5490



1980년 뉴욕에서 초연된 후 지금까지 5,000회 이상 공연되며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는 롱런 뮤지컬의 대표작 ‘브로드웨이 42번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당시 사회를 배경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그린 작품으로, 국내에는 1996년 초연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더 화려해진 볼거리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번 무대에서는 화려한 무대와 의상, 그리고 30여명의 앙상블이 보여주는 칼군무는 관객들을 압도한다.

2018 춤추는 남자들-전통춤판

**일 시** 9월 16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춤추는 남자들 집행위원회 010-9350-5273



지역 춤을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남자 춤꾼을 초청해 마련하는 2018 춤추는 남자들-전통춤판.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승조교인 이진호의 ‘처용무’를 비롯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1-1호 진주 삼천포농악 이수자인 우진수의 ‘12차 농악북춤’, 서울시무용단 수석 한수문의 ‘도살풀이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 전수교육조교인 이강용의 ‘문동북춤’,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인 흥기태의 ‘대신무’, 경남무형문화재 제27호 진주오광대 예능보유자인 강동욱의 ‘양반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인 최병재의 ‘승무’, 춤꾼 남기성의 ‘허튼 덧배기춤’을 선보인다.

연극 **염쟁이 유씨**

**일 시** 10월 5일 금요일 오후 8:00, 6일 토요일 오후 4:00, 7:00, 7일 일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5천원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 1544-5564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대표 모노드라마 ‘염쟁이 유씨’.  
대대로 ‘염’을 업으로 삼아온 염쟁이 유씨의 삶을 통해 ‘살과 죽음’이란 소재를 유쾌하게 풀어낸 ‘염쟁이 유씨’는 지난 13년간 꾸준히 대학로와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65만 명이 관람한 대표 스타디셀러 연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원조배우 유순웅과 1천회를 돌파한 임형택이 1인 15역을 맡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작/김인경 ● 연출/위성신
- 출연/유순웅, 임형택

영화 | Movie

제17회 미장선 단편영화제 **‘장르의 상상력展’ 수상작 특별전**

**일 시** 9월 7일(금)-9일(일)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장르로 단편영화 보기를 제안하는 국내 유일의 영화제인 미장선 단편영화제 ‘장르의 상상력展’ 수상작 상영전.

제7회 인도영화제

**일 시** 9월 14일(금)-15일(토) 영화의전당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문의** 주한인도문화원 부산 508-4254

지난 2012년 인도 뭄바이와 영화도시 부산이 우호 증진과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작한 인도영화제.

무용 | Dance

2018년 박상용의 전통춤 **오래된 새로움**

**일 시** 9월 7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박상용 010-2047-1074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춤 전수교육조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이수자,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으로 있는 춤꾼 박상용의 무대.  
우리 전통춤의 창조적 계승의 작업과제를 두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역사성을 지닌, 우리춤 정신의 ‘맥락’을 이어나가기 위한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처용무, 허튼 덧배기춤, 진춤, 동래학춤, 동래한량무, 진도걸북춤 양태홍류

행사 | Event

더무지카아트홀 성악 아카데미 7기 **전상철 가곡교실**

**일 시** 매주 월요일 오전 11:00(오전반), 화요일 오후 7:30(오후반) 더무지카아트홀  
**입장료** 수강료 7만원(4주과정, 교재비 포함)  
**문의** 더무지카아트홀 010-7191-2878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합창연합회 회장, 더뮤직콰이어, 더올림합창단, 부산콘서트콰이어 지휘자, 더무지카아트홀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전상철과 함께하는 가곡교실.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가을 그리고 그리움 1**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25일 강좌없음)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 4일 (670회)** 지난 가을의 노래(popular music)
- 11일 (671회)** 가을의 노래(film music)
- 18일 (672회)** 가을 그리고 그리움 (instrumental music)

## 시네바움아트홀바움 9월 아카데미

**일 시** 3일(월), 4일(화), 10일(월), 11일(화), 17일(월), 18일(화) 시네바움·아트홀바움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시네바움·아트홀바움 010-2774-3455

**3일(월)** 오후 7:30 하이쿠로 만나는 일본의 미학(10)  
방랑시인 이노우에 세이게츠(井上井月)의 하이쿠 미학\_타네다 산토카(種田山頭火)의 영화 ‘호카이 비토, 이나노 세이게 츠(ほかいびと, 伊那の井月)’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문학평론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4일(화)** 오후 7:30 세익스피어 읽기(3)  
메멘토모리, 왜상화법(Anamorphosis), ‘햄릿’(1)

- 강사/김해룡(영문학 박사, 한일장신대 인문사회과 학부 외래교수)

**10일(월)** 오후 7:30 윤산의 고전읽기(3)  
주역의 이해

- 강사/윤산, 김수정(부산카톨릭대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부산대학교양교육원 외래교수)

**11일(화)** 오후 7:30 (임기를 마치고)부산을 떠나며...

##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일 시** 9월 11일(화) 오후 7:30, 12일(수) 오후 2:00, 14일(금) 오후 7:30, 17일(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11일(화)** 오후 7:30 콕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33강 베르디의 생애와 음악 베르디의 생애와 음악세계를 알아보는 콕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33번째 강좌.

**12일(수)** 오후 2:00 색/컬러 인문학 특강\_색이 삶을 말한다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 전문가)

**14일(금)** 오후 7:30 여행, 예술을 만나다 제8강 독일 프랑크푸르트

- 강사/김성민(아트커뮤니케이터)

**17일(월)** 오후 7:30 색이 삶을 말한다 제19강 세상속의 색, 그 색 속의 나-인테리어 색채 2로 말한다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 전문가)

- 강사/서인화(국립부산국악원 원장)

**17일(월)** 오후 7:30 심진호 교수의 예술기행(11)

재즈의 도시 뉴올리언스에서 만난 뮤지션들\_영화 ‘버드’로 만난 색소 포니스트·찰리 파커



- 강사/심진호(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교수)

**18일(화)** 오후 7:30 함정임의 문라잇 특독 ‘괜찮다는 말은 차마 못하 여도’

- 강사/함정임(소설가,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 제131회 알바트로스 詩낭송회 여행, 자연 주제 시낭송회

**일 시** 9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신세계안과 문화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 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 전시 | Display

### 브릭라이브 정글 익스피리언스

**일 시** 8월 1일(수)-9월 25(화) 영화의전당 비프홀 1층  
**문의** 브릭라이브 731-7011



영국의 브릭라이브사가 멸종 위기의 정글 동물을 주제로 실물 사이즈의 브릭으로 제작한 동물 작품들과 360도 돔 미디어쇼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획한 인터랙티브 전시.

실물크기의 브릭으로 만든 동물 작품들을 보고 즐기며, 다양한 브릭 작품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 ‘One Day Art Met Fashion: BAGGU X OIMU’展

**일 시** 8월 31일(금)-9월 30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전 11:0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12만원(3개월 수강료)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클래식음악해설가 김옥균(전 MBC PD, 시인, 음악치료사)이 진행하는 클래식 음악 영상감상회.

## 월드뮤직, 미술과 영화와 역사를 만나다 -예술의 새 페러다임

**일 시** 9월 5일(수)-12월 5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3:0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입장료** 수강료 25만원(12주, 해설집 제공)

**문의**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663-5311

9월에는 켈트족의 전통 음악인 켈틱음악에서부터 쿠바음악, 집시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

- 기획, 해설/예필 최정옥

## 한국화·서양화 작곡작가 및 원로중진작가 작품전

**일 시** 9월 1일(토)-9월 12일(수)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 타워아트갤러리 이전기념 특별기획 ‘自然의 음, 香’전

**일 시** 9월 13일(목)-9월 22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 2018년 제31회 부산합창제 참가단체 모집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2018년 제31회 부산합창제에 참가할 부산지역내의 합창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1.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 행사명        | 모집부문                        | 비고         |
|------------|-----------------------------|------------|
| 제31회 부산합창제 | 부산지역을 연고로 한 합창단(혼성, 남성, 여성) | 신청서 및 악보제출 |

### 2. 행사일

- 2018년 10월 22일(월)~2018년 10월 24일(수)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3. 참가신청 및 심의 발표

- 참가신청 접수 : 2018년 8월 27일(월)~9월 7일(금)
- 참가단체 모임 : 2018년 9월 19일(수), 14:00 예정

###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18년 8월 27일(월)~2018년 9월 7일(목)(주말 제외)
- 접수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합창단 프로필 사진, 연혁(6줄 기준), 지휘자 및 반주자, 단장 사진, 악보 제출.  
※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사무국에 제출.  
(사진은 jpg 파일로 hwanycap@naver.com으로 전송가능)  
※ 구비서류 누락시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제31회 부산합창제의 연주는 시니어, 여성, 남성, 혼성 합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5.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 051-607-3115~6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통합기념 제5회 부산 직장인밴드 경연대회 참가 신청자 모집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일보사는 문화융성 시대를 맞아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제5회 부산 직장인밴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1. 경연개요

- 가. 대회명 : 제5회 부산 직장인밴드 경연대회
- 나. 대회일정
  - 접수기간 : 2018년 9월 21일(금)~10월 21일(일) 18:00까지
  - 본선경연 : 2018년 11월 17일(토) 15:00
  - 심사위원 : 이수용(NEXT), 이시영(모비딕), 타미킵(기타리스트)
- 다. 시상내역 : 10팀 총상금 1,200만원
  - 대상(상금 500만원) 부산음악창작소 음원제작, 2019부산국제록페스티벌 서브스테이지캐스팅
  - 최우수상(상금 300만원) 부산음악창작소 음원제작
  - 우수상(상금 200만원), 장려상(상금 100만원)
  - 인기상, 화합상, 우정상(각 2팀)
- 라. 참가비 : 없음
- 마. 참가곡 : 자유(기존곡 또는 창작곡 기입필), 1곡

### 2. 참가자격

부경(부산, 경상) 순수 아마추어 직장인밴드로 구성된 팀으로 2인~15인 이내(솔로 참가 불가) ※ 단일직장이 아니어도 무관하나 본인명의 단독 정규음반발매 등 프로페셔널은 참가 제한(디지털 싱글앨범은 가능)

### 3. 참가신청

- 가. 접수기간 : 2018. 9. 21.(금) ~ 10. 21.(일) 오후6시까지
- 나.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한글파일로 제출필), 영상음악 파일(WMV or AVI or MP4 30M 이내, ※ 용량업수), 팀사진 파일(jpg 3M 상당)
- 다. 접수방법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홈페이지 (www.bscc.or.kr) 커뮤니티>새소식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파일제목에 참가밴드명 필히 명기)

### 4.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 (kjl17@bscc.or.kr)로 문의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대관신청 | 대관료 16107 \* 2019년 상반기

## 대상

- 부산문화회관 : 극장(대/중/챔버홀), 전시실  
※ 사랑채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대관 불가
- 부산시민회관 : 극장(대/소), 전시실 1, 2  
※ 대극장은 5월부터 공사 예정으로 1월 ~ 4월까지만 대관 가능

##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19. 1. 1. ~ 2019. 6.30. (6개월)
- 대관 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부산시민회관(www.bscc.or.kr/citizen/) 팝업 참조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8.30.(목) 09:00 ~ 2018. 9.10.(월) 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및 온라인 접수(전화 및 구두신청은 받지 않음)
  - 전자우편  
- 부산문화회관 : 극장 rent@bscc.or.kr / 전시실 gjh1834@bscc.or.kr  
- 부산시민회관 : 극장 kgy17@bscc.or.kr / 전시실 mayday@bscc.or.kr
  - 온라인 : www.bscc.or.kr/rental
- 결과회신 : 9월 말(예정)

## 대관심의 우선기준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는 대관 제외

##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 대관심의 ⇒ 심의회 결과 통보

## 대관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 (재)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또는 시설대관신청서, 세부계획서 작성 후 전자우편 신청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파일 첨부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 할 수 없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 계약금(대관료의 3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잔 금 : 공연/전시 예정일 30일전(대극장은 60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70%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관 승인이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별도 부과

## 문의

- 부산문화회관(대관담당) : 극장 051-607-6058, 6066 / 전시실 051-607-6063
- 부산시민회관(대관담당) : 극장 051-630-5234 / 전시실 1, 2 051-630-5232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김정은, 김성훈 지음 / 미래의창  
352p / 1만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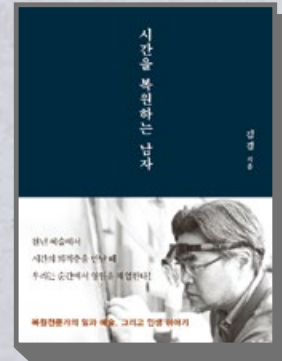
연예산업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에 나선 국민들이 으쓱해질 만큼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킨다. 아시아에서 부는 한류 열풍은 더 이상 뉴스도 아니다. 아프리카 어디에서는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TV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도 한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해외 진출은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를 점령이라는 쾌거를 낳았다. '한류'는 세계문화 속의 글로벌 키워드가 된 것이다. 모두가 한류의 열광에 취하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고속 성장에 찬사를 늘어놓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그 열광에 도취되기보다 '한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인기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우리나라의 연예산업을 분석하고 조명한 제대로 된 이론서 하나도 없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 책은 한국 연예산업의 최근 흐름을 짚어내고, 뜨는 콘텐츠들의 생존 전략을 분석하고, 한류의 숨은 연출가인 파워리더 18인의 면면을 소개한다. '한류'는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비즈니스 전략, 치열한 승부가 빚어낸 탁월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 얼굴은 예술이 된다

제임스 홀 지음, 이정연 옮김 / 시공아트  
464p / 3만 2천원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가 2013년에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셀피(SELFIE)'였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것이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말해주는 단어이다. 그런데, '셀피'는 현대의 문화현상일까. 영국의 저명한 미술사가 제임스 홀은 셀피가 중세부터 시작됐다고 말한다. 이 책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려는 자화상이 중세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준다. 15세기까지는 화가들이 자화상에 자신을 드러내더라도 주변 인물로 등장하거나, 작게 표현되거나, 다른 인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가 그리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490년대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의 재능을 뽐내며 업적을 자랑하는 예술가들이 늘어난 것이다. 예술가의 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졌고, 그들을 신화화하는 경지까지 이르렀다. 예술가의 자화상은 인기 있는 수집품목이 되기도 했다. 이 책에서 중세부터 현대까지 만들어진 자화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재미도 있지만, 사회가 예술가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예술가들의 자기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화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시간을 복원하는 남자

김경 지음 / 문학동네  
264p / 1만 6천 500원

보존복원전문가 김경 씨가 복원전문가의 일과 예술,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낯선 분야인 복원가의 작업과 일상을 담담하게 서술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경은 미술사와 미술비평을 전공하고 일본과 영국에서 보존복원을 공부했다. 영국 유학시절, 링컨 대성당 복원 팀에서 일했다. 그때 저자는 시간을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절감했다. 문화재로 지정된 이 성당의 복원 작업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 성당 외벽을 한 바퀴 돌며 복원하는 데만 70년이 걸린다. 작업에 참여하며 저자는 문화 선진국에서 보존복원은 일회성 작업이나 여행행사가 아니라 꾸준한 돌봄과 치료를 뜻한다는 것을 체감했다. 저자는 현재 김경미술품보존연구소를 운영하며 가르치는 일을 함께하고 있다. 로댕, 마르셀 뒤샹, 살바도르 달리, 안젤름 키퍼, 헨리 무어, 호안 미로, 클래스 올덴버그, 백남준, 권진규, 이성자 등 여러 작가의 작품을 복원했다. 또한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와 문익환 목사의 피아노 등 다양한 근현대 기록물을 복원했다. 복원은 기술적 완료가 아니라 기억과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며, 잃어버린 시간을 복원하는 것임을 느끼게 하는 책이다.

# 2018 시민 팝스 축제

매주 금요일 추억을  
시민회관에서



**누구나 즐기는 축제**  
(무료공연) \*우천시 취소

**일 시:** 9월 7일(금) ~ 10월 12일(금)  
**매주 금요일 12시 20분 ~ 13시**  
**장 소:**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 일정       | 단체명       | 장르   |
|----------|-----------|------|
| 9.07(금)  | 민주신티리오    | 재즈   |
| 9.14(금)  | 정다혜댄스컴퍼니  | 라틴댄스 |
| 9.21(금)  | 부산팝스앙상블   | 팝    |
| 9.28(금)  | 소리숲       | 퓨전국악 |
| 10.05(금) | 이소정 경기민요  | 경기민요 |
| 10.12(금) | 네살차이      | 대중음악 |
|          | 부산시립무용단   | 전통무용 |
|          | 폴란드그룹 볼로시 | 재즈   |
|          | 젊은 풍류     | 퓨전국악 |





# VIP

##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8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최백호의 청춘 콘서트 [종료]

5월 12일(토) 14:00, 18: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세대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보이스, 이 시대 최고의 젊은 보컬리스트들이 함께 노래하고 싶어하는 가수 최백호의 특별한 무대.  
(S석에 한해 1인 2매 예약가능, 각 공연당 50좌석 선착순)

### 이반 크르판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5월 20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2017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이반 크르판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 사무엘 윤&손지혜 듀오콘서트 [종료]

6월 1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의 주역가수 사무엘 윤과 오페라무대의 차세대 디바 손지혜의 듀오무대.

### 미하일 플레트네프&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종료]

6월 27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인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초청 무대.

### 김옥련 발레단 발레컬 '운수좋은 날' [종료]

7월 17일(화) 오후 2:00, 18일(수) 오후 2:00, 8: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인 4매, 회당 40매 선착순)

현진건 원작소설 '운수좋은 날'을 발레와 연극, 노래, 현대춤 등 다양한 장르가 아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로 탄생시킨 발레컬 무대.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종료]

8월 21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100매)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극장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공연.  
• 지휘: 정치용 • 협연/피아니스트: 손민수

###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4 **예약중**

8월 29일(수), 10월 31일(수), 11월 28일(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100매)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4.  
• 지휘: 김봉미 • 해설: 조윤범

### 카푸송&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종료]

10월 20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함께하는 무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4~6)

# VIP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김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중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철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부산아트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이명아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이정일 정민섭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영희 (전)국회의장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성락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중래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조충영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진경옥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하정태 한원우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한원우 허 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현임숙

※ 2018년 8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만나다

### 바쁜 삶 속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박장호 이사



(주)세정21 대표이사로 30여년 넘게 일하다 지난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박장호 이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술과 문학 등에 관심이 많은 경영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다. (주)세정21 대표이사로 있던 시절, 부산 기업으로는 처음 사옥 1층에 갤러리 샵을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던 박장호 이사는 해외출장을 가더라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미술관만큼은 꼭 찾을 정도로 미술애호가이다. 퇴직 후 요즘에는 여가시간이 늘면서 전시장을 더욱 자주 찾게 되었다는 그는 3년 전부터는 아트포럼 회원으로 활동하며 포럼에서 진행하는 전문강좌를 통해 미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미술에 대한 안목이 늘면서 하나둘 사모은 작품이 어느새 100여점이 넘는다는 그는 기회가 된다면 그가 소장한 작품들을 제대로 된 공간에 전시하고 싶다. 박장호 이사가 갤러리 만큼 즐겨

찾는 곳은 바로 영화의전당. 일반영화 보다는 예술영화를 즐겨보는 편이라 자주 찾을 때는 한달에 서너차례 가곤 한다. 또, 그림 보는 것 만큼이나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그는 딱히 분야를 가리지 않지만 특히 시를 즐겨 읽는다. 알고보면 그는 2009년, 사람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응시와 성찰이 담긴 시집 '세상을 핑계로'를 발간하며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선배인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장문호 이사의 권유로 가입한 후 후원회 활동을 하면서부터 문화예술이라는 같은 관심사를 지닌 후원회원과의 만남이 즐겁다는 박장호 이사. 후원회 이사가 되고서 부터는 공연장도 일부러 찾게 됐다는 그는 요즘 라디오로 즐겨듣던 클래식음악을 공연장에서 만나는 재미가 특별하다고 한다.

### 공연장에서 갖는 힐링의 시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서현석 이사



한국고무산업 대표 이사로 있는 서현석 이사는 최근 즐겨듣던 라디오 채널을 뉴스 전문채널에서 클래식 전문채널로 바꿨다. 딸이 첼로를 전공하다 보니 아무래도 문화예술과는 가까울 수 밖에 없지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이 되고서 부터는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후원회원이 되기 전에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공연장을 찾았지만 요즘은 공연장을, 특히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고 있다. 최근에는 그의 생애 첫 발레공연이었던 '발레리노 김용걸과 함께하는 Summer Ballet Festival' 관람 후 발레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는 서현석 이사. 그의 달력에는 12월에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송년무대까지 일 년 공연스케줄로 빽빽하다. 아무래도 영업을 필수인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타 직업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다는 그는 공연장에 앉아있는 시간

만큼은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매년 연말이면 친구들과의 송년회를 공연장에서 가지며 친구들에게 공연관람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다는 그는 좋은 공연이 있어도 찾아주는 관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평소 '후원은 남모르게, 참여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그는 후원회원을 맡은만큼은 자신도 (재)부산문화회관의 홍보대사라는 생각으로 부산문화회관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서현석 이사가 대표로 있는 한국고무산업은 조선기자재 고무관련 제품을 제조, 납품하는 회사로, 사상에 위치한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에 자리하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72회 정기연주회  
Busan City Chorus



# Antonio Vivaldi

# Gloria

루마니아의 거장

## ADRIAN STANACHE

초청연주회

1부 GLORIA in D major rv 589 - A.Vivaldi

2부 Opera song  
Humming chorus from Madama Butterfly - G.Puccini  
Hebrew Slaves Chorus from Nabucco - G.Verdi

Favorite song  
O Mio Babbino caro - G.Puccini  
Laudate Dominum - W.A.Mozart

Spirit song  
I can tell the world - M.Hogan  
I'll make a difference - M.Hogan

Modern song  
Ner Ner - Jake Runestad  
!Que rico e mambo! - Guido López Gavilán

2018. 9. 14 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티켓 균일 10,000원 예매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607-3116(시립합창단), 6074~5(정기회원)  
할인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임산부, 의사자 및 유족, 의상자 및 직계가족, 모범납세자, 경로우대자 30% 단체(30명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학생 20% 단체(20명 이상), 외국인  
☎ 서비스 운영(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극장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공연 3시간 전 30분 전 2회 운영

*Lee Hojeong*

이호정 피아노리사이틀  
J.S.Bach/Beethoven/Mussorgsky



세계를 빛낸 부산출신 피아니스트

# 국제 콩쿠르 우승자 초청 리사이틀 시리즈

2018. 10. 4 THU PM 07:30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  
이호정 피아노 리사이틀

2018. 10. 5 FRI PM 07:30

한국인 최초,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  
홍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Hong Minsoo*

홍민수 피아노리사이틀

All Liszt Program ("순례의해" 제1권 "스위스" 외)

노자와 베토벤 2018  
LAO-JINBEETHOVEN

「孤酒忘態」

# 고즈그망[忘]

忘孤酒

예술감독 오충근  
Choong-Keun Oh

연 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usan Symphony Orchestra

특별출연 최진석  
Jin-Seok Choi

2018.10.6 (토) 5:00pm 망[忘]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민회관  
국립무용단

향연

SCENT OF INK



2018  
10.06 (토)  
15시, 19시

안무 윤성주  
연출 정구호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관람료  
R 3만원  
S 2만원  
A 1만원

예매 및 문의  
부산시민회관 051-630-5200



CAFE GGO DEUNG O





☎ 051-231-0059

📍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 171 암남동 124-1 101호  
(송도 해상케이블카 매표소 내)

유네스코가  
'꼭 한번 방문해야 하는  
세계 음악 마켓'이라고 평가한  
워멕스, 2017년 개막작

#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 5중주 [볼로시] 부산 공연

비올라 Jan Kaczmarzyk 바이올린 Krzysztof Lasoń  
더블베이스 Robert Waszut 첼로 Stanisław Lasoń  
바이올린 Zbigniew Michałek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2018.10.12(금)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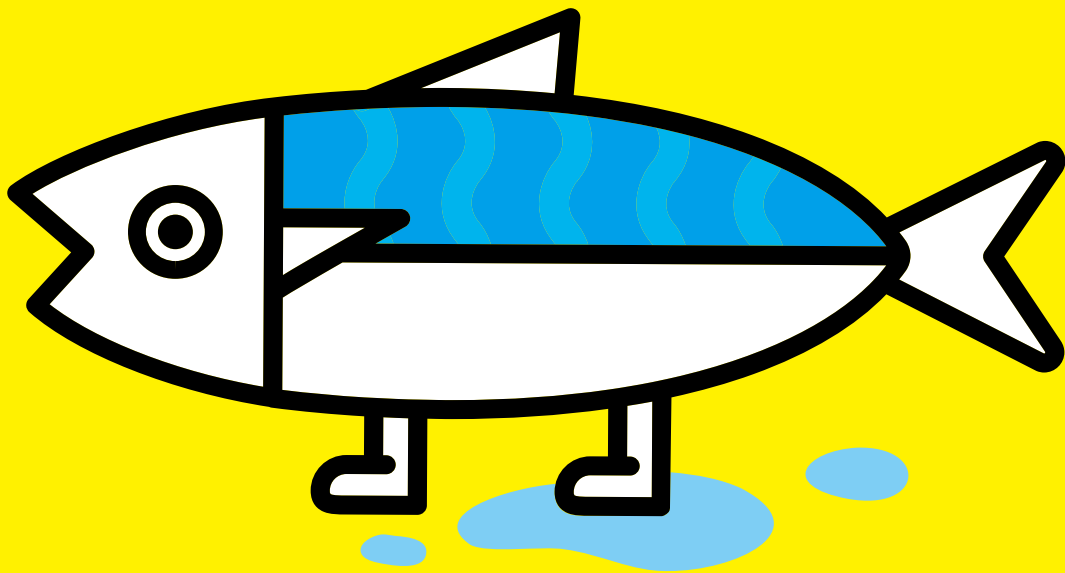
문의 및 예매 : 051) 630-5200 [www.bscc.or.kr](http://www.bscc.or.kr)  
입장료 전석 1만원(8세 이상 관람가)

발 달 리

# 꼬드어

GGO  
DEUNG O

호기심으로 뚝뚝 뭉친 두다리로  
여행을 즐기는 부산 대표 캐릭터



[www.designivy.com](http://www.designivy.com)

꼬드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GDO DESIGN

it Award



FACEBOOK



INSTAGRAM

Renaud Capuçon



르노 카푸송 &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하이든 교향곡 제27번 G장조, Hob.I:27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A장조, K.219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D장조, K.218  
하이든 교향곡 제59번 A장조, Hob.I:59



Kammerata  
Salzburg

2018. 10. 20(토)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초등학생이상 입장가능

예매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